



# 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3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 703-0755



지난 8월 27일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아래 좌로부터 林光洙회장 식사, 장학금 담사, 鄭明熙부총장 격려사)

(커버스토리 4~5면)

장학금 수여

## 작은 정성이 만든 “우리는 하나”

### 관사춘추

장학금은 아름답다. 책고 빌 새나는 돈, 깨끗한 돈, 뇌물에 쓰이는 돈, 자선금 등 돈에도 귀 권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학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돈은 없을 듯하다. 주는 행복감과 받는 즐거움이 어우러져 장학금의 아름다움은 배가되기 때문이다. 장학금은 부의 나눔을 통해 사회를 기쁨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유 기를 한다.

그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로, 서울대총동창회 2003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 열렸다. 매년 1·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수여되는 이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62명, 특지장학금 50명 등 모두 1백12명에게 등록금으로 1인당 1백94만원씩 수여되었다. (음대 기금장학금은 음대동창회에서 별도 지급)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선배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행사로 뜻이 깊다. 이 장학금은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지기능을 대신하고 또 부의 사회환원과 기부문화 활성화 촉진의 본보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장학금은 단순한 액수의 과다로 평가될 인은 아니

### 장학기금 더욱 확충해야

다. 비록 많지 않은 액수에 수혜자가 소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계량할 수 없을 만큼 기대 효과도 크고 또 투자의 순환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학금이 짧은 후학들의 학업원을 불태우고 희망과 도전에 좌절이 없도록 용기를 북돋는 불씨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 영국총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인 기실도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그로 해서 문학작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록펠러도 재단을 넘기지 않았다면 후세에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로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장학금 실태는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재원, 인력의 할부나, 가난한 독지가 등 장학금 기부가 근래에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기부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재는 것대의 하나가 기부문화이고 대학의 우열별기가 장학금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울대 장학기금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銅)

만든 는설위원 金鈴洙, 金門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炳均, 南仲九, 金鎮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植玉,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奎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鄭瑞禧 광고부장 金千鶴

## 동문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서울대 동창회보가 더욱 밝고 건강한 얼굴로 동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지면 306호부터 재미있고 읽기 쉬운 회보, 유익한 정보가 있는 회보, 느낌과 감동이 있는 회보로 거듭나기 위해 지면을 색선했하고 다양한 내용과 편집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동문들의 삶아가는 여가와 선행, 재미있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재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동창회보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동문 동정을 보내주시면 지면을 조정해서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메일 snua@korea.com

### <이번호 지면>

- 4면 소식 : 2학기 장학금 수여식  
8면 뿌리를 찾아서 : 사법대학·동창회  
9면 추억의 장 : 林采郁(64년 文理大卒) 동문  
11면 동문 기자의 취재수첩 :  
동아일보 정치부 崔英勳(동문)  
KBS 스포츠국 金偉震(동문)  
14면 가족 : 韓東燮(52년 養大卒) 동문  
15면 동문을 찾아서 : 금호건설 申勳(동문)  
Noblesse Oblige : 선재마을 金光洙(의회장)  
18면 화제의 동문 : 모교 공대 韓民九(학장)  
모교 경영대 李京默(교수)  
21면 나의 건강법 : 대구도시가스 金英蕙(회장)  
22면 이런 일 합니다 : 국회 사무처  
31면 동창회보를 읽고

## 2004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립니다.

이번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Soft Cover를 사용함으로써 부피와 크기를 최대한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11월 초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甲申年의 설개와 구상을 새겨서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대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모임예정

7063)

### 건축학과

9월 20일 홈커밍데이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李永熙)는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모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35동 4층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

### 정치·외교학과

9월 23일 조찬세미나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朴鍾圭)는 오는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뽕부스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6343)

##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19일 일요일,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5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19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 林恩珠(68년 音大卒) 교수의 CD를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3년 10월 19일 (일)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천

△문의전화: (02) 702-2233

##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사 부 문                                                             |
|-----|-------------------------------------------------------------------|
| 참여성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협력성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영광성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4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4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 환경대학원

9월 26일 조찬모임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는 오는 9월 26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뽕부스에서 조찬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5669)

### 상대27회

9월 27일 홈커밍데이

상대27회 동기회(회장 李燮煥)는 오는 9월 27일 오후 4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522-2291)

### 전기동문회

9월 28일 홈커밍데이

전기동문회(회장 李林澤)는 오는 9월 28일 오전 10시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1794)

### 기계동문회

10월 12일 정기총회

기계동문회(회장 蔡海勳)는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9-0133)

### 금속동창회

10월 12일 홈커밍데이

금속동창회(회장 李東學)는 오는 10월 12일 오전 11시 30분 모교 관악캠퍼스 벚꽃길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5856)

### 가정간호수습과정

10월 25일 정기총회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英淑)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 모교 연천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301호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40-8840)

## “옛 안경들 한 자리에 모였네”

모교 의학박물관 “우리 옛 안경” 특별전  
故 김 철 하버드대 교수 안과기구 기증



실더라 안경은 안경의 다리 대신 실을 위에 고정시키는 형태로서 대부분 증상을 집었다 컸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경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 부분을 약간 안쪽에 꺾어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

텔레비전 사극에서만 보아 오던 구한말 안경부터 진기한 전세계의 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사계탑 건물 제1회의실에서 美하버드대 의대 안과교수를 역임한 고 김 철(조경 김)박사의 미발간 김철자 여사, 모교 1층 1층 1층을 비롯한 안과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박사의 유물 기증식이 있었다.

모교 병원 의학박물관(관장 金石華)은 이날 고 김 박사가 기

증한 우리 옛 안경 등 안과기구 70여 점으로 10월 18일까지 제4전시실에서 “안과역사가 모은 우리 옛 안경”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 박사는 張 勳 전 총리와 모교 미대 張 勳 초대 학장의 외조카로서, 인공수정제 삽입술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부산 해양대학교에 다니며 군인으로 복무하던 김 박사는 1955년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하버드대에서 의학을 전공하면서 안과역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1964년 하버드대 의대 부속병원인 메사추세츠 안·이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980년대 중반 백내장과 녹내장 등 시 수술법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崔秉復 전 대통령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된 김 박사는 2001년 9월 4일 퇴직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986년 모교 병원 안과에 “세극등”을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기증은 특히 고인이 생전에 쓰던 의료기구와 관련 자료, 그리고 평생 모은 우리 옛 안경까지 박사의 체제가 물려받은 기증품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안경은 초창기 형태인 실더라 안경에서부터 경주 납석으로 만든 안경 등 30여 점과, 원형안경집, 수안경집 등 안경집 30여 점까지 전시된다.

고인 내외와 오랜 전편이 있었던 소설가 朴鍾基씨는 “미망인은 고인이 비록 육신은 미국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그가 사랑한 서울대 의대에 머물기를 바라며 그가 생전에 모은 유물을 기증했다”며 “평소 소망을 품지 않았던 고인이지만 세계 각국을 여행할 때 동서고금의 안경을 사 모은 것을 보면 그는 타고난 안과 의사였다”고 추도했다.

## 중국 연변 구개열 무료 수술

모교 치대 鄭弼薰교수팀



모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鄭弼薰(73년 歲大卒·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교수팀이 중국 연변에서 10명의 연성이 환자에 무료수술 활동을 펼쳤다.

鄭교수는 서울 소파교회 교수 선교회와 공동으로 중국 연변 북지병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선천성 구순구개열(연성)환자 10명에 대한

무료 수술을 펼쳐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鄭교수팀은 지난해 파키스탄과 이집트에서 연성이 무료진료를 펼친데 이어 급전 2월에도 파키스탄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다. 이번 연변 무료진료에는 무료 수술 외에도 연변대학 북지병원에서 학습강의를 열기도 했다.

## “백혈병 어린이들의 발이 생겼어요”

기아자동차·돌리나라에서

모교 어린이병원학교에 버스 기증

늘 답답한 병실에서 지내야하는 백혈병 등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예쁜 돌리 캐릭터로 장식한 큼직한 ‘발’이 생겨 기쁨을 주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돌리나라에서 모교 어린이병원학교에 승합차(카니발 II·2천9백여만원 상당)를 기증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래밍 기아타이거즈는 광주구장에 ‘돌리존’을 설치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마다 1백만원, 안타를 치면 50만원씩 적립하는 모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식은 지난 7월 29일 모교 병원 분수대 주차장에서 열렸으며, 기아자동차 金重成(39기 AMP)부사장, 돌리나라 문주국장, 모교 병원 朴善熙원장, 어린이병원학교 申熙龍교장 등이 참석했다.

申熙龍교장은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어린이병원에 일임해 있는 환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기아자동차와 기아타이거즈, 돌리나라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에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박물관 견학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증받은 승합차를 이용해 일일 또는 외래진료 받는 어린이 중에서 의사 졸업이 가능한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국립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교과과정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병원학교는 지난 1999년 7월 개교해,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서울대 어린이병원 부설 평생교육시설(늘푸른교실)로 정식 등록됐다.

(慶)

## 임상의학연구비 외국 수혜 본격 도래

모교 신경정신과 柳仁鈞교수  
美스탰리의학연구소 9천만원 수혜

임상의학연구비의 외국 수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모교 병원 신경정신과 柳仁鈞(88년 歲大卒)교수(사진)가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아류의존연구소(NIDA) 등에서 임상의학연구비를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미국 유수의 의학연구기관인 스탰리의학연구소(the Stanley Medical Research Institute)로부터 9천여만원(미화 7만6천달러)의 연구비를 받았다.

柳교수는 지난 2000년 “정신 분열병-정동장애 연구연합(National Alliance for Research on Schizophrenia and Affective Disorder)”과 “Harvard-MIT 임상의학연구비”를 수혜한데 이어, 올해 스탰리의학연구소의 연구비를 수혜함으로써 미국의 3대 민간 의학연구기관 연구비를 모두 수혜하는 기록을 세웠다.

柳교수의 연구 주제는 우울증 치료에서의 사이타린 보충제의 효과평가를 위한 뇌 영상 연구. 이 연구는 단극성 및 양극성 우



울증의 원인 및 치료과정을 최신 뇌 자기공명영상광명상(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기법을 이용해 밝혀내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미래의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柳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에서 임상 및 연구 전임(1992~94년)의 교수(1994년~96년)를 지냈으며, 96년부터 모교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다양한 정신장애의 원인 및 치료과정을 규명하는 뇌 구조적, 기능적 연구를 한 바 있다.

### 朴亨禧동문

미국 마틴대 조교수로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토론 경영학 박사’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모교 경영대학은 지난 8월 13일 朴亨禧(88년 經大卒)박사(사진)가 이번 학기부터 미국 테네시 마틴대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학분야에서 국내 출신 박사가 외국 대학의 교수로 된 경우는 있었으나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국내 박사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일이다.

朴동문은 1999년 林鍾沅교수의 지도로 “기술상용의 혁신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美남가주대(USC)에서 3년간 “포스트바드” (박사 이후 연구과정)으로 연구활동을 했으며, 올해 1학기부터 모교에서 강사로 활동해 왔다.

### 미술작품

京作 張

〈작가박목〉

- ▲78년 모교 다대 초소과 졸업
- ▲83~88년 이루주작화전
- ▲86년 조가마(14인전)
- ▲87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8~90년 개교전 3대
- ▲90년 제3경매회 개관7주년 기념전
- ▲90~97년 한국미술작가협회 정기전
- ▲97년 오송미술관, 오송미술관
- ▲98년 한국미술 2000년대 도전전
- ▲99년 김원동미술관, 우리미래아트
- ▲한자 출품자 전시



“생각한다”, 석고품, 나무, 35×35×30cm, 1999.

## 재학생 2백19명에 장학금 3억7천여만원

林회장 “도덕적 책임과 공인의식 실천하길”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7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卞麗鎬(의교학과 4년)군을 비롯한 1백12명에게 2억1천7백99만4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본회 許 韓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장학생 여러분들이야말로 전회의 존재들이 모여든 우리 나라 최고 지성의 전당인 모교를 빛낼 자랑스러운 주인공이자 국가의 명운을 짊어질 최고의 엘리트에게 여러분의 높은 위상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과 공인(公認)의식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적은 기적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듯, 스승과 선배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鄭雲燦총장을 대신해 鄭明熙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오늘날 도처에서 불어오는 반서열대 바람과 파가운 비난의 시선은 우리의 한 위치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며 “비록 우리가 나아갈 변화의 길에 많은 난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서울대인의 잠재력과 의지, 노력에 가해질 때 모교는 새롭게 태어나리라 자신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동시에 오늘과 같은 동문들의 정성어린 뒷받침과 성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卞麗鎬군이 장학생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신 선배들은 오래 전부터 진리 탐구라는 책무를 몸소 맡으며 모교에서,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리라 믿는다”며 “선배들의 이

같은 정성을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후배들을 충실히 이끌어가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機삼일부회장, 金濟淑·孔大植·鄭永錫·鄭忠始부회장, 李世賢경예사무총장,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明泰鉉·安聖哲·鄭八道·金秉順이사를 비롯해 모교 鄭明熙사무총장, 방대동창회 李相慶회장, 사대동창회 辛東一회장, 음대동창회 韓相宇회장, 관악무역인회 曹章鉉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일성(주) 李璠희고문, 가천의대 崔勝憲사무총장, 이수페타시스 金容均대표, 성지출판(주) 洪荷鄒사장, 삼양점수공업(주) 張明機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1백7명에게 1억5천4백83만9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3년도 2학기 장학금은 총 2백19명에게 3억7천2백83만3천원이 지급됐다. (단, 총동창회 1학기 장학금 지급은 2억8천여만원임)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동창회(회장 俞淑子)=2명; 3백14만8천원 ▲법대동창회(회장 李相鎭)=37명; 5천2백62만6천원 ▲상대동창회(회장 朴容麗)=40명; 5천7백42만9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祐宰)=2명; 6백58만4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璠植)=5명; 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韓相宇)=1명; 2백17만1천원 ▲치대동창회(회장 梁顯植)=4명; 1천1백64만8천원 ▲대

학원동창회(회장 金主植)=2명; 6백24만3천원 ▲경정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2명; 3백만원 ▲언론정보학과대학원동창회(회장 金彥鎭)=1명; 1백88만8천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金光雄)=2명; 2백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5명; 3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2명; 2백만원 ▲가정간호사과정동창회(회장 朴英敏)=2명; 60만원

지난 8월 27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년도 2학기 특지 및 기금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다. 각 장학회별 수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李鍾基 특지장학금

경영학과 학생 2명 지원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주·관악회 이사)사장이 설립한 「李鍾基 특지장학금」을 통해 이날 모교 재학생 具恩貞(경영학과 4년)양과 蔡世濤(경영학과 1년)군이 등록금 전액 총 2백80만3천원을 받았다.



### 林光 특지장학금

2명에게 3백81만원 지급



임광보전 林光洙(52년) 工大주·본회 회장이 설립한 「林光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林회장은 모교 재학생 權智勳(기계항공공학부 4년)군과 宋美愛(생물교육과 3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81만원을 수여했다.

### 洪性大 특지장학금

의대 재학생 2명 지원

학교법인 삼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주·본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사장이 설립한 「洪性大 특지장학금」으로 洪이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宋長奎(의학과 4년)·鄭泰慶(의학과 3년)군 등 2명에게 1백5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전달했다.



### 金靛淑 특지장학금

학년별로 4명에게 수여



첨아차과병원 金靛淑(60년) 齒大주·본회 부회장)이사장이 설립한 「金靛淑 특지장학금」으로 金이사장은 이날 모교 치의학과 朴南南(4년)·李修珍(2

년)양, 朴勝範(3년)·金學成(1년)군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1천1백64만8천원을 전달했다.

### 亞南 특지장학금

8명에게 1천9백만원 전달

영교테크놀로지코리아(주) (회장 金柱津: 54년) 法大入)가 설립한 「亞南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모교 재학생 趙仁國(컴퓨터공학부 2년)·金東均(기계항공공학부 3년)·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석사 2년)·任桃均(기

계항공공학부 박사 1년)·金明俊(행정대학원 석사 2년)군, 金所何(사회과학부 1년)·金雅麟(디자인학부 2년)·尹水仙花(제약학과 4년)양 등 8명에게 등록금 전액 1천9백2만3천원을 전달했다.



## 李吉女 특지장학금

## 2명에게 3백10만원 전해

경원대 李吉女(57년 韓大卒·분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이 설립한 「李吉女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가천의대 崔勝奎부총장이 모교 재학생 李仁政(인문사회교과부 2년)·李慧英(법학부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3백10만2천원을 수여했다.



## 鄭八道·李慈伴 특지장학금

## 2명에게 3백69만원 전달

(주)동인 鄭八道(1기 AIP·과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鄭八道·李慈伴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鄭회장은 모교 재학생 李路經(응용화학부 2년)·白宰珩(경영학과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3백69만1천원을 전했다.



## 金秉順 특지장학금

## 의대·법대 재학생 2명 지급

(주)한국국악인 金秉順(4기 AIP·과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金秉順 특지장학금」으로 김회장은 이날 모교 법대 朴達亨(법학부 3년)군과 의대 金維翰(의학과 2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4백90만7천원을 전달했다.



## 郭永範 특지장학금

## 2명에게 3백91만원 지원

(주)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範(60년 工大卒·분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郭永範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郭회장은 모교 재학생 徐有珍(자연과학부 4년)·金秀貞(자연과학부 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3백91만1천원을 전달했다.



## 鄭哲圭 특지장학금

## 2명에게 4백52만원 수여

신원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분회 부회장)이사장이 설립한 「鄭哲圭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분회 부회장이 모교 재학생 金泰安(응용화학부 2년)·金倫煥(응용화학부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4백52만2천원을 수여했다.



## 張學淳 특지장학금

## 공대 재학생 2명 지급

삼양정수공업(주) 張學淳(50년 1대卒)회장이 설립한 「張學淳 특지장학금」을 통해 이날 대리로 참석한 삼양정수공업(주) 張明振사장이 공대 재학생 金應中(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1차 2년)군, 韓明實(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1차 1년)양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5백27만5천원을 전달했다.



## 吳仁錫 특지장학금

## 2명에게 3백만원 수여

제미송동창회 吳仁錫(62년 韓大卒·분회 부회장)명예회장이 설립한 「吳仁錫 특지장학금」을 통해 이날 관악대학의인회 南高慈회장이 모교 재학생 金允浩(인문계학과 3년)양, 金進輝(경제학부 2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1만6천원을 지급했다.



## 孫致武 특지장학금

## 과학계열 2명 혜택 받아

지진과학동창회(회장 金英雄)가 설립한 「孫致武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이 모교 재학생 韓鍾豪·金奎柱(지구환경과학부 4년)군 등 2명에게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을 전달했다.



## 기타 특지장학금

임성(주) 張仁(63년 工大卒·과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張仁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인성(주) 李敏根(63년)이 모교 재학생 張在根(사회복지학과 4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1백22만3천원, (주)한국기술교육 朴仁錫(74년 工大卒·과악회 이사)대표가 설립한 朴仁錫 특지장학금으로 羅志元(사회과학대 1년)군에게 1백58만원을 전달했다.

기원대동창회 楊振敏(54년 韓大卒)명예회장이 설립한 楊振敏 특지장학금으로 간호학과 박사 1년 李京龍양에게 2백57만원을 수여했으며, 동일기술공사 吳海根(60년 工大卒)회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金土·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법학부 金鎭鎭(2년)양에게 1백55만1천원을 수여했다.

또 화북과동창회(회장 張文美)가 설립한 「화북과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도 모교 화북대 尹聖賢(4년)군이 1백82만2천원, 삼지승관(주) 洪俊都(87년

農人卒)사장이 설립한 「洪俊都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鎭鎭(생리학과 3년)군이 1백50만원을 받았다.

유니온리츠 安奎熙(63년 法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安奎熙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尹慶珠(법학부 2년)양에게 1백55만1천원, (주)오미아코리아 鄭忠始(76년 工大卒·분회 부회장)사장이 설립한 「鄭忠始 특지장학금」으로 鄭동문이 직접한 지정한 공대 재학생 金秉勝(응용화학부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99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분회 金道熙(47년 法大卒·분회 이사)교수와 그의 자녀(1대3남)가 공동명의로 설립한 「牧村 5父子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차남 金鎭均(83년 社會大卒)동문이 모교 재학생 張文一(법학부 4년)군에게 1백22만3천원을 수여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熙(60년 侯大院卒·과악회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朴明熙 특지장학금」은 10월 중 모교 연선 캠퍼스 보습대학원에서 우수논문 발표한 석·박사 3명에게 2백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張世一 특지장학회



洪尚郁 특지장학회



安聖哲 특지장학회



鄭忠始 특지장학회



牧村 5父子 특지장학회

## 기금장학금 전달



李世應 기금장학회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봉문들로 구성된 盧德會(회장 李在一)는 「盧德會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李相彬(치의학과 2년)군에게 1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분회 李連煥(72년 工大卒)명예사무총장이 설립한 「李連煥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李慶珠(법학부 2년)양에게 1백55만1천원을 수여했다.

李元奎(63년 農大卒·前사관청 임업연구회)봉문이 설립한 「李元奎 기금장학금」으로 생물과학부 韓南賢(4년)양에게 1백82만2천원, 鄭東熙(65년 法大卒)1년교사장인 「鄭東熙 기금장학금」으로 사회자연과학과 李仁泰(2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2백8만9천원을 전했다.

(表)

## 호주 시드니지부

## 골프대회 및 동문 발표회 개최

호주 시드니지부동맹회(회장 承源弘)는 지난 7월 30일 Liverpool 골프클럽에서 골프모임을 개최했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承源弘(63년 文理大卒)등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공동 준우승은 鄭文基(70년 慶大卒)·洪元杓(68년 工大卒)등인과 尹晉吉(65년 文理大卒)·趙旭正(67년 商大卒)등인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장려상에 鄭樂謙(84년 大學院卒)·鄭昌基(64년 工大卒)등인, 감투상에 李熙彪(57년 工大卒)·

尹晉吉(65년 文理大卒)등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여 가진 만찬에서 申東明(61년 工大卒)등인이 「물에 관한 진실~The shocking truth of water」라는 주제로 물과 건강에 대한 유익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에도 Liverpool 골프클럽에서 정기 골프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李澤昊(87년 醫醫大卒)등인이 「밥의 집합과 밥 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 처과대학

## 제6회 「친목 골프대회」 열어



梁희장(좌로부터 네 번째)이 우승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처과대학동맹회(회장 梁源植)는 지난 8월 20일 용인 프라자 CC에서 제6회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그로스 점수 및 타이어 코스를 마친 챔피언 조에 姜泰賢(77년卒)등인, 신페리오 방식 및 라이온 코스를 마친 핸디캡조에 鄭官龍(85년卒)등인, 여성부에 田惠林(89

년卒)등인이 각각 우승했으며, 단체상은 31회(姜泰賢·孫在雲·金載英등인)가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챔피언조 준우승: 李光倫(72년卒)등인, 3위: 金鳳煥(78년卒)등인, 4위: 金光善(61년卒)등인, 5위: 姜信英(73년卒)등인, 니어리스트: 林鍾昊

(88년卒)등인, 봉게스트: 沈裕順(89년卒)등인.

▲ 핸디캡조 준우승: 金相集(73년卒)등인, 3위: 姜宏求(90년卒)등인, 4위: 金善海(80년卒)등인, 5위: 金文起(73년卒)등인. 메달리스트: 崔光哲(62년卒)등인, 봉게스트: 韓錫振(86년卒)등인, 니어리스트: 鄭鼎殊(90년卒)등인.

▲ 여성부 준우승: 金善淑(60년卒)등인, 3위: 李賢經(89년卒)등인.

▲ 단체상 준우승: 27회(姜信英·徐榮秀·李曉泰등인), 3위: 32회(金鳳煥·金奇石·李載龍등인).

▲ 특별상 원로등인: 金行元(56년卒)·吳孝錫(57년卒)·林榮均(57년卒)·張興珠(57년卒)등인, 지방등인: 金鳳煥(78년卒)·禹順午(78년卒)등인, 최다 참가상: 27회(11명).

## 국가정책과정

## 한반도 평화정책 강연

국가정책과정동맹회(회장 金相熙)는 지난 8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徐廷模(27기)·韓錫振(15기)·安昌炎(18기)·李達華(24기)·鄭鍾模(25기)·李珍沅(29기)등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별 연사로 초청된 羅維一(63년 文理大卒) 대동원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반도의 평화변영 정책,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참석자들과 연연 토론을 벌였다.

羅등인은 72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 정경대 학장, 인위사회재건연구원장, 대의원장을 역임했으며, 북한국제평화연구연구원 원장, 국가정보원 외교담당 특별보좌역, 주영국 대사관 대사를 거쳐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 의대 17회

## 10월 21일 졸업 40주년 행사

의대17회 동기회(회장 蔡洙應)는 지난 8월 20일 삼성의료원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강당에서 모교 회장 및 교수 등을 초청해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화창시절 및 40년간의 세월이 담긴 기념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으며, 기념식을 마친 후 오후 7시부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등반 및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다나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단양 별정, 안성 하회마을, 거제도, 외도 등 국내 명승지를 관광하는 부부동반 기념여행을 추진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 의대 37회

## 용평서 졸업 20주년 모임 가져



의대37회 동기회(회장 金宰中)는 지난 8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제2교수회관에서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李宗郁학장의 인사말과 모교 현황 소개가 있었으며, 동문 기념촬영과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를 선물했다.

2부 사은회 행사는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이뤄졌으며, 모교 權韓錫전임총장, 金相仁·金勝煥·金水均·金所讓·金福永·金福福·盧寬澤·白萬基·白相賢·尹雅求·李向國·李伯範·李純炯·李惟

信·李定均·李漢九·張友銘·趙斗英·朱振源·車昌龍·成殷根·洪彰義등에 교수, 金永根·朴贊一·安允正·李健旭·李允浩·崔國福·韓大熙교수, 李宗郁학장, 朴孝敏병원장, 국립암센터 차재민원장, 인제대 상계백병원 최주선터 石世一소장, 성균관대 徐正煥총장, 성균관대 의대 安南煥교수 등에게 동기회에서 마련한 기념시계를 전달했다.

한편 동기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부 및 가족동반으로 용평리조트에서 졸업20주년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表)

# 모교소식

## 2002학년도 후기 졸업

### 총 1천9백99명 학위 받아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 의과대학(석·박사)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려 학사 1천13명, 석사 6백49명, 박사 3백37명 등 모두 1천9백

9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8만5천4백20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 총장 선출 방식 「1인 1표제」로

모교는 총장 선출시 「1인 1표제」와 평의원회 위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체제 개정을 확정했다.

모교는 지난 8월 21일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칙 및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를 선출한 뒤 1인

단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각 단과대학(원) 교수회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을 선출한 뒤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1차 투표에 이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2차 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 고려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교수 교환도 점차 확대하기로

모교는 지난 8월 25일 고려대(총장 熊允大)와 학점과 교수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모교 재학생은 2학기부터 고려대에서 학점의 2분의 1까지 수강(의대 제외)할 수 있으며, 고려대 재학생은 모교에서 최대 35학점(의대 제외)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모교와 고려대의 재학생들은 양교 도서관에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도 자유롭게 찾아

볼 수 있게 됐으며, 올해 겨울 방학 계절학기부터 상대 학교 교수들의 강의를 개설하는 등 교수 교환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교는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두 대학이 교육과 연구 분야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李相澤교수 등 18명 정년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문학관 증강실에서 鄭雲燦총장을

##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 구분     | 8월졸업  | 총회원     |
|--------|-------|---------|
| 인문대학   | 114   | 8,946   |
| 사회과학대학 | 133   | 11,505  |
| 자연과학대학 | 71    | 8,815   |
| 생물과학대학 | 21    | 3,352   |
| 간호대학   | —     | 3,041   |
| 경영대학   | 49    | 5,374   |
| 관공대학   | 267   | 36,000  |
| 농업생명대학 | 104   | 18,590  |
| 문리과학대학 | —     | 9,731   |
| 미술대학   | 20    | 4,398   |
| 법사대학   | 69    | 14,419  |
| 사범대학   | 120   | 23,290  |
| 성신대학   | —     | 6,723   |
| 수의과대학  | 1     | 1,962   |
| 약학대학   | —     | 5,631   |
| 음악대학   | 24    | 6,438   |
| 의과대학   | —     | 10,079  |
| 치과대학   | —     | 5,498   |
| 대학원    | 861   | 67,354  |
| 경영대학원  | —     | 701     |
| 교육대학원  | —     | 653     |
| 국제대학원  | 31    | 31      |
| 보건대학원  | 33    | 2,712   |
| 사범대학원  | —     | 506     |
| 신문대학원  | —     | 294     |
| 행정대학원  | 36    | 3,858   |
| 환경대학원  | 25    | 1,907   |
| 수소계원   | 1,999 | 261,780 |
| 준회원    | —     | 13,338  |
| (단기과정) | 334   | 10,302  |
| 계      |       | 285,420 |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8명의 교수 정년식이 열렸다.

이날 정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相澤(국어국문학)교수, 黃東奎(영어영문학)교수, 韓永恩(국사학)교수, 鄭鍾律(지구환경과학)교수, 李基俊(응용화학)교수, 鄭基亨(원자핵공학)교수, 南重熙(생물자원공학)교수, 姜燦均(다지인학)교수, 李鍾祥(동양화)교수, 鄭鍾永(동양화)교수, 孫鳳鎭(사회교육)교수, 鄭鍾台(교육교육)교수, 朴萬基(약학)교수, 朴烈丞(생약)교수, 玄海恩(기약)교수, 金哲偉(치의학)교수, 林昌禧(치의학)교수, 崔鶴源(치의학)교수.

## 모교 미술관 기공

### 대학 미술관 1호...2005년 개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돼온 국내 최초의 대학 미술관인 모교 미술관이 지난 8월 30일 관악캠퍼스 정문 원전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설계한 신축 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이 건립, 기증하며 오는 2005년 9월 개관될 예정이다.

모교 미술관은 대지 1백17만 6천평, 연면적 1천3백평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세워진다.

지난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한 李鍾祥 초대 미술관장은 「사회교육 기능을 갖춘 미술관으로

육성한다던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공체의 구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자 쿨하스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립미술관, 일본 후쿠오카의 네서스 원도, 프랑스 릴에 있는 콩그레소프 등이 대표작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본회 白文基 고문, 林光洙회장, 孔大燮부회장, 李信子마대동창회장, 모교 趙完奎 전임총장,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鎡대학장을 비롯해 洪羅熙호암미술관장, 金宗圭한국박물관협회장, 金熙喆관악구청장 등 2백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 음악대학

### 뉴욕 등 미주 5개 지역 순회공연

음악대학(학장 金 빛)은 국악과, 성악과, 기악과 남녀 재학생 10명으로 연주단을 구성해 재미총동참회(회장 吳興昨)의 초청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미주지역 순회공연을 펼쳤다.

국악과 姜恩俊교수가 지도를 맡은 연주단은 10일 워싱턴DC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14일), 팔라팔파(16일), 달라스(18일)를 거쳐 20일 LA 공연까지 5개 지역에서 총 5회의 공연을 개최했다. 소프라노, 테너, 피

아노 등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연주단은 매 공연마다 미주 동문들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미주 순회공연은 재미총동참회가 모교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후배들에게 해외 공연의 기회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한편 미주 각 지부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이다.

(續)

## 사범대학

## 사범대학 동창회

## 한성사범·경성사범이 모태가 되

## 뿌리를 찾아서

## 弘志會·明鏡會·校友會에서 출발

글: 權五良(72년 師大卒) 도쿄 사대 교무부장

글: 俞千根(64년 師大卒) 상임부회장

1896년에 개교한 한성사범학교를 모태로 발전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수 교사 및 교육전문 인력 양성, 교과교육학, 교육학 및 관련 학문의 창의적 연구 그리고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왔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우리 나라 교육의 총 본산으로서, 우수한 교사를 배출해 교육현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가, 교육연구자를 배출해 교육 연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 우수한 교과교육학 전문가를 양성, 교과교육학을 학문 영역으로 정착시켰으며 많은 학자들 배출했다.

1991년에 국립 사범대학 출신 교사들의 의무발령제가 폐지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위상에 대한 도전이 있어왔으나, 여전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우리

나라 교육의 중추를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근래에 공교육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는 유능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 교사가 더 많이 교육현장에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본 사범대학에는 현재 총 15개 학과 즉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가 있으며, 각 학과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원에 6개 협동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악교육, 미술교육, 가정교육은

석·박사 과정을, 특수교육, 경영교육, 환경교육은 석사과정을 두고 있다.

부설학교로는 초·중·고·고등학교가 있으며, 연구원은 교육행정연구원, 중등교육연구원, 생활체육지도자연구원이 있다. 연구시설로는 교육종합연구원(교과교육연구실, 외국어교육연구실, 사회교육연구실, 과학영재교육원, 정보화연구실, 특수교육연구부 포함), 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체육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특별 사업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지도자과정」과 「교육정보화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외부인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는 대외봉사 사업으로

「우리 자녀의 학교공부 바로 하기」라는 주제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 시리즈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범대학이 삼성 SDS의 지원으로 개발한 인터넷 중학교와 인터넷고등학교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범대학 졸업생의 다수가 중·고등학교의 교사, 교육

부와 그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연구 전문가, 대학의 교수, 학살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교육계 및 학계 이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의 총본산으로서의 기능과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교과 교육과 관련된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 2004년 준공되는 교육정보관 조감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는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 및 그 부설 중등교육기관 양성과 교육연구원 출신의 통합 동창회로서, 오늘날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원은 현재 2만4천3백여 명에 이르며, 성문동신산업(주) 辛東一(58년卒) 회장이 32대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동문들은 중·고등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및 대학교수와 대학의 총·학장으로서 교육 일선에서 우리 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왔고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2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범대학 동창회는 金鍾泌(46년入), 李榮德(52년卒), 鄭元植(54년卒) 등 문공부 3명의 국무총리와 10여 명의 장·차관,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행정가, 언론인, 사업가, 예술인, 법조인, 외교관 등을 배출했다. 동문 대다수가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벌이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창회를 위상을 높였으며 우리 나라 발전에 공헌,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동창회에서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동문친목 동산대회, 친목수련대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네 번 동창회보를 발행하여 동창회, 각 시·도 지회, 학과 소신을 전하고 동문들의 인사 이동, 근황, 경조사 등 동정을 자세히 알리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 우수 졸업생에게 동

창회장상을 수여하고 신입 동문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으며, 정년 퇴임하는 동문들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1년에 두 차례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들을 발굴·선정하여 격려하고 있다.

동창회에서는 종로구 신문로의 동창회관 임대 수입으로 1974년부터 1995년까지 21년간 모교 재학생 9백9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다가 동창회관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회관이 철거되어 장학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동문들이 정성껏 모은 장학기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모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재단법인 「南冠獎學會」 설립을 신청해 놓고 있다.

한편 서울 모문 동창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관 마련을 위한 모든 사항을 위임했다.

동창회 고문으로 있는 崔泰祥(57년卒)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교섭이 좋은 서울 시내에 대지를 구입하고 회관 건물을 건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구 동창회관 매각대금만으로 회관 마련이 어려워 전 동문과 목자기들에게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새 동창회관이 마련되면 회원들을 위한 친목 활동은 물론 임대 수입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하게 되어 동창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사진: 2001년 11월 월정리역에서 친목수련대회 참석자들이 함께

## 신관건립 추진위원회 및 장학회 구성

## 교육종합연구원·교육정보관 등 신설



## ■ 연 혁

- 1945년 10월 1일 경성사범학교 및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 경성사범대학 발족
-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공포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칭
- 1950년 6월 1일 문학부, 이화부의 2개 학부에 12개 학과 설치
-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대학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며, 부산 피난 시절에는 연합강의식으로 운영되다가 1953년 정부 환도로 서울로 복귀
- 1951년 9월 1일 부속중학교(6년제)가 부속중학교와 부속고등학교로 분리
- 1963년 4월 12일 서울대학교 교과대학원 설립 (1975년 7월 28일 폐지되고 대학원으로 편입)
- 1975년 3월 1일 대학원에 박사과정 인가(1986년 3월 1일 사행)
- 1997년 5월 31일 교육종합연구원 신설, 기존의 연구소들을 신하에 둬
- 2003년 5월 9일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건물 착공(2004년 12월 준공 예정)

## ■ 연 혁

- 1945년 10월 경성사범학교 출신 동문회 「弘志會」 조직
- 1945년 11월 경성여자사범학교 출신 동문회 「明鏡會」 조직
- 1951년 8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 동문회 「校友會」 조직
- 1955년 10월 「弘志會」와 「校友會」 중심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발족, 최초의 회원명부 발간
- 1966년 10월 「明鏡會」,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에 통합
- 1974년 10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75 조세 보정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실 이전
- 1996년 7월 동창회관이 소재한 종로구 신문로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사무실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10동 308호실로 이전
- 1998년 8월 동창회 사무실을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02호실로 이전

# 新刊

## ■ 낯선 지구촌 이야기

—鄭夏五 著



현대엔 지니어린 사람을 역임한 鄭夏五(58년 工大卒) 동문이 부탄, 파지, 남극 등 관광객이 자주 찾지 않는 나라의 일반인이 가볼 수 없는 곳을 여행하면서 접하기 어려운 풍물과 경치와 풍속을 자세하고 친근감 있게 묘사하여 한 권의 수필로 출간했다.

부탄에서는 태어난 때처럼 물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고, 네팔에서는 초자연의 산들을 대했으며, 남극의 바위에 걸린 왕방울보다 맑고 영롱한 별들을 보기도 했다고, (신광출판합판과·값8,500원)

## ■ 신의 나라 인간 나라

—李元龍 著



만나 이 낯나라의 작가인 李元龍(66년 工大入) 본보는 설위원)교수가 들려주는 아주 유쾌한 서양 철학 이야기.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러 철학자와 중요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사회 변혁에 끼친 철학의 영향, 실용 학문으로서의 철학 등을 테마별로 묶어 그 당시 철학자들의 생각과 고인을 만나 볼 수 있다. (두산동아사·값10,000원)

## ■ 이것만은 알고 경영하자

—禹昌命 著



우리경영 혁신연구소 禹昌命(70년 農大卒) 소장과 한국 시장유통연구원 협동원이

경영철학 및 매출증대, 이익증대 위한 성과향상 지침서(수정판).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인, 관리자, 그리고 창업 준비생 등이 알아야 할 문제들, 그리고 신용대출은 하려는 금융인, 경영컨설턴트

트가 고려해야 할 기업경영의 실천 노하우 등이 담겨 있다. <우리경영혁신연구소·값10,000원>

## ■ 심전 식품마케팅

—禹昌命 共著



광동 집필한 식품마케팅 전략서.

신입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마케팅 전략, 신제품 전략, 제품재판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프로모션 전략, 마케팅 관리 및 대리점 개발, 영업력 향상을 위한 영업관리 포인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경영혁신연구소·값19,000원>

## ■ 하얼빈의 여명 1, 2

—張俊浩 著



95년 張俊浩(원명 장형, 74년 工大卒) 동문이 최근에 安重根의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소설을 출간했다.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운명을 던져 싸우다 순국한 安重根의사와 일본제국 침략정책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이토 히로부미를 주축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와 시대정신을 그렸다. (도서출판 예작관·각권 값8,000원)

## ■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高承德 著



모교 배재 재학 중 고 3 3관왕의 타이틀을 획득한 高承德(80년 法大卒)변호사가 고시 합격기

와 23년 간직 쓴 인생 메모를 합쳐 정리한 기록이다.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면서 살아온 高承德의 방황과 고민, 목표 설정과 결단, 구도, 도전, 성공의 과정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개미들출판

# 추천의窓

## 선배들의 학문 지도로 석학들 여럿 배출 교양학 D반 64명, 「心史會」로 친목 다져

林采郁(84년 文理大卒)북방문제연구소·한국대 객원교수

1957년 4월 중순 어느 날 2교시 강의가 끝나고 문리대 교정에서 찬란한 꽃들을 배경 삼아 사진 한 장 찰라. 당시 그 귀한 카메라를 누가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찍은 사진이다.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가 4월 15일 밤에 열렸으니 이를 전후한 어느 날 일 듯싶다. 사진 왼쪽에 보이듯이 때마침 대학로의 교정에는 개나리꽃이 한창이었고 꽃과 벌들의 情話도 한창이던 시간이었다.

사진에는 사회학과 3학년 선배 세명이 보인다.

姜信杓·金東來·吳俊洙 선배. 나머지는 심리학과·사학과·사회학과 입학 동기들. 심리학의 李敎英동문, 사학과 金京熙·車一龍동문, 사회학과 羅素淵·金泳謨·朴喜震·申幸澈·安東珪·劉載天·필자(앞줄 가



운데)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세 학과 64명은 교양학부문 D반으로 1년간 교양학부 강의를 같이 들었고, 이 인연은 오늘에도 이어져서 「心史會」라는 이름으로 연 1회 모임을 갖는다.

사회학과 선배 세명은 모두 학문의 길로 나갔고 이제는 석학교수, 명예교수가 있다. 이들 세 분을 포함한 3학년 선배들 몇몇이 주동이 되어서 5월초부터 사회학과 동기 29명을 3~4명 단위로 묶어서 사회학 원서강독을 지도하고 학문에의 길을 자극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동기들도 대부분 학계로 진로를 잡았고 석학의 반열에 올랐다. 하긴 문리대 인문학 누군가를 일차적으로는 학

문에의 길을 학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정이 워낙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아카데미즘이나 저널리즘이나의 선택에서 고뇌도 하던 터였다. 이러한 형로에서 나르시시즘을 느끼기도 했고 지적오만을 부리기도 했으리라.

암울하던 당시 4월의 대학로는 사실 꽃의 향연으로만 채색되지는 못했다. 대학전을 따라 흐르는 전범은 인공염색수가 흐르고 색은 오물로 덮여 있었다. 이 모습처럼 정치가 정인줄 모르고 치정하는 불의의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3년

뒤 강히 민족의 두뇌이고 삼강이 라 자부하면서 민주와 자유의 종을 두드리는 기수가 되고 타수가 뿔의기를 입태시키고 있었다.

뒤에 安重珪동문은 심지어 이들 기수와 타수를 앞장서서 金京熙·金泳謨·劉載

天동문은 행동회의 이론적 뒷받침에 정열을 쏟으면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되지만 이 때는 청춘과 밝고웃고 학문에 대해 애통모색하던 때였을 뿐이다. 그 고뇌의 일단을 劉載天동문이 어느 강의시간에 화갈져 쓴 한 구절이 말해준다. 「너 흐르는 아류 속에, 넌쳐나는 끝없는 속에 떠내려 가는 송아지 새끼가 되지 말고, 눈멀고 귀먹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가?」

어떻게 나르시시즘과 지적오만에 뒷받침된 젊은 날의 고뇌는 뒷날 이름 넣어서 조국과 민족을 향한 열정과 책임의식으로 승화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사과·값13,000원)

## ■ 논문 10%만 고쳐 써라!

—金亨順 著



수준대 신소재융합공학부 金亨順(83년 工大卒)교수가 과학논문을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 논문쓰기」를 주제로 강연해온 金亨順은 이 책속에서 국내외의 논문 가운데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잘못된 논문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바른 논문 작성요령과 유의점 등을 담았다. (아스미디어사·값10,000원)

## 公演

### ■ 安智賢 첼로 독주회

—9월 18일 예술의 전당

부천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안

智賢(95년 音大卒)동문이 첼로 독주회를 갖는다.

97년 미국 매네스옴대 대학원을 졸업한 安智賢은 이발 베토벤의 소나타를 비롯해 바흐, 쇼팽,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 이태정 바이올린독주회

—9월 21일 예술의 전당

독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인 李태정(97년 音大卒) 동문이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뮌헨 국립음악대 박사과정에서 있는 李동문은 이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해 슈만, 윤이상, 프로코피예프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 申敏定 피아노 독주회

—9월 25일 예술의 전당

독일 뮌헨 국립음악대 피아노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申敏定(89년 音大卒)동문이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총신대, 그리스도 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등에 출강하고 있는 申동문은 이발 베토벤, 아이슬러, 브람스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 鄭玲安 첼로 독주회

—9월 27일 예술의 전당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악대에서 수학한 鄭玲安(96년 音大卒·주제예대, 공택대 출강) 동문이 베토벤, 윤이상, 드뷔시,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지리=安襄賢 기자)

— 바로 집합시다 —

자난 호(제305호) 25면에 게재된 「신간」 소개에서 「한국의 부자들」 저자는 모교 인류학과 韓相福동문교수가 아닌 성균관대 출신의 한상복 씨에게서 바로 집합시다.

이 질문은 20~30대 네티즌들에게는 너무나 쉽겠지만, 40대 이상의 네티즌에게는 대부분 생소하게 들리는 어려운 퀴즈임에 틀림없다.

요즘 우리 나라 젊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MSN메신저」라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화면에 뜨는 것도 이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신세대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화되어 버린 이 「MSN메신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실시간 대화의場」이라 할 수 있다.

메일 주소와 암호만 등록한 뒤 서로 상대방의 메일 주소만 알면, 수십 명의 친구이건 애인이건 누구와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시간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더구나 「자리 바움」, 「물화중」, 「식사중」, 「곰 돌아옴」 등 자신의 현재 상태까지 알리고, 돌아와 버린 하나만 누르면 대화 상대 모두에게 「떠임」하는 경고를 하나로 즉각 대화를 계속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

수십 년 전 우리 주변에 전화기가 보급됐을 때 지금의 기성세대가 느꼈던 편리함의 감탄사를 몇 년 전부터 신세대들은 이 메신저의 등장으로 통해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비록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편리한 대화의 수단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별로 이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회사에서 課長이 열심히



느티나무광장

## MSN 메신저를 아시나요



金仁圭  
KBS 아사

인터넷을 배우는 기성세대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이 「대화의 장」에 들어가 신세대들과 채팅 한번쯤 나누면서 세대간의 격차를 좁혀보시면 어떨까요? (본보 논설위원)

히 직원들에게 혼신할 때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며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는 메신저를 연결해 「과장님」의 열변을 마치 증계방송 해설하듯 멋대로 찢고 있다는 웃지 못할 고백이 심심찮게 들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에 때도 때도 없이 연결되는 친구들의 메신저 때문에私談을 나눌 수 없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과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벌써부터 사내 모든 컴퓨터에 이 「메신저」의 사용을 금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KBS 뉴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부터 이 메신저의 회원으로 등록해 몇몇 젊은 세대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비록 대화의 속도나 語法이 느리고 고답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먼 외국의 전지들과도 서로만 연결되면 두터로 마음껏 이른바 「채팅」을 나눌 때 느끼는 편리함과 신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digital divide」는 원래 빈부의 격차에 따른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기회의 격차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빈부에 의한 격차보다 세대간에 의한 격차가 더 심각하고, 최근에는 세대에 따른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격차까지 더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배우는 기성세대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이 「대화의 장」에 들어가 신세대들과 채팅 한번쯤 나누면서 세대간의 격차를 좁혀보시면 어떨까요? (본보 논설위원)

## 동문잡담

### 대륙붕 확장위한 세계대전 시작됐다

지난 7월 주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일반 독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기사가 실렸다.

내용인즉, 동아일보는 「일본 또 하나의 야심—바다 밑 영토 늘려라」의 기사 제목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영토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서태평양의 광대한 해저(대륙붕)를 일본 영토로 편입, 확장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하는 기사였고, 일본 정부는 내년(2004년)부터 4년간 해저탐사에 1천4백억원(약 1조4천억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대륙붕 해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경계를 확정하고, 「일본 소유」주장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 of continental shelf: CLCS)」로부터 심사받으려는 정부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1세기의 해양강국으로서 천연해저 자원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목표임을 기술했다. 또한 삼나라인 일본이 과거엔 군사력을 이용한 아시아대륙 진출을 시도했다면, 2009년까지의 서태평양 대륙붕 해저탐사와 새로운 영토 확보는 막강한 경제의 힘과 점진적 해양과학 탐사와 협으로 영토확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웠다고 기술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일본 새 대륙붕 찾아라」의 기사제목으로 아시아신문(7월 9일자)의 보도내용을 기술했다. 즉,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대륙붕 개발과 탐사를 추진하는 단위기구를 총리가 주도하며 이것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그리고 자민당을 비롯한 3개 여당 간사장들은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륙붕의 탐사와 개발을 추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각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충분한 조사비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이러한 국가프로젝트는 오늘의 많은 연안국들이 새로운 해저영토(대륙붕)의 확장과 소유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현실을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륙붕 확장과 소유의 전쟁은 유엔 해양법 76조와 CLCS의 과학기술 지침서에 근거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안국의 EEZ(2백해리)에 틀러서하여 1백50해리까지의 해저대륙붕을 확장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해저 2천5백미터 수심에서 1백해리까지 더 소유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2백해리 이월(바깥)의 대륙붕은 제주도 남방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중심 축에 이르는 남부대륙붕에서 확장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76조에 근거하여 매우 충분한다. 많은 과학탐사자료와 고차원적(해양법과 정치적) 전략에 기초하여 속고하고 결심해야 한다.

그런데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제3차 유엔 해양법(UNCLOS, 1994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된 것임)에 근거해 1997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선출된 21명의 위원으로 처음으로 구성됐던 것이다. 21명의 위원은 연안국가 정부가 유엔에 추천한 해양지질학, 측지학, 수문학 및 해양지구물리학 전공의 우수한 후보자 중에서 전 세계의 지리적 평등한배 원칙에 따라 연안국사국의 유엔대사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필자는 우리 정부의 추천을 받고 당선된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다시 2002년 6월부터의 5년 임기에 재당선돼 세계 여러 연안국들의 대륙붕 한계의 경계 획정의 제출문건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임무에 임하고 있다.



朴龍安  
(61년 文理大卒)  
모교 지구환경  
과학부 명예교수

# 동문지사의 회계수첩

## 우여곡절 많았던 「정치인 참회록」



崔惠遠(83년 法大卒)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가 지난 8월 20일자부터 4면에 연재하고 있는 「정치인 참회록」은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사회에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육성으로 고백을 하는 형식부터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다. 돈과 폐거리처럼 통 낡은 정치의 유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고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의 육성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정권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 또한 깊고 크다고 하겠다.

동아일보가 이런 아슬한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민주당 경선 자금을 양심고백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김홍배(72년 南大卒)의원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계기였다. 김의원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기소한 검찰, 우리의 일그러진 정치문화 전체를 통틀어 「아픈 사회」라고 규정했다.

「정치인 참회록」이라는 기획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정치부의 한 차장이 냈다. 최근 정치부 수석차장으로서 부장으로 승진한 李東寅(81년 社大卒) 부장은 이 아이디어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정치부의 몇 차례 회의를 거친 뒤 기획안을 정리해 국장단에 보고를 했다.

그러나 국장단의 반응은 「아이디어는 좋은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연 정치인 중에 누가 자신의 비리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어차피 계기가 김홍배의원이 고백한 정치자금 문제였으므로 첫 회는 「검은 돈」 고백으로 권리를 줬다. 국장단에 보

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불가피하게 참회록 시리즈 첫 기사를 출고하는 D-데이를 하루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도중 개혁성향이 강한 한 초선의원이 자신은 곤란하니 대안으로 S의원을 추천해 줬다. 삼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뜻밖에도 선선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S의원은 「법률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본 일이 있느냐」는 거듭되는 질문에 「기어코는 게 없다」면서도 「나라고 그런 일이 없

## 첫회는 「검은 돈」 고백으로 콘티 짜

고도 하고 일요일인 8월 17일을 첫 기사를 출고하는 D-데일로 정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고백할 양심적인 정치인을 발굴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10여 명을 상대로 의사를 타진해봤으나 하나 같이 「고백할 게 없다」며 난색을 표하거나, 「제발 좀 봐 달라」고 하소연을 하며 고사했다.李 부장은 「반드시 성사시켜라」라는 임명으로 독려를 했고 필자를 비롯한 후배기자들을 베풀 끝으로 밀어붙였다. 후배들은 신문 제작을 하지 않는 토요일까지 출근해 애를 써보

였다.그만 할 수 있었느냐? 합법적이고 깨끗한 돈만 얻어 썼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돈에 쫓겨다니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줄 때 미리 조건을 거는 경우는 없지만, 대개 얼마가 「좀 도와 달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차기자의 집요한 질문 공세를 받고도 결국 「화환단」 고백은 하지 않았다. 발가벗은 것이 아니라 반쯤 벗었다는 듯한 상태여서 취재는 끝났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기사를 교체하며 출고했다. 예상대로 국장단의

반응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리즈의 첫 기사로는 한량이 떨어진다든 것이었다. 결국 이 기사는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차기자에게 다른 사람을 몰래해 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李 부장은 모교 정치학과 선배인 기자 출신인 朴憲珍(64년 文理大卒) 前국회의원에게 타진해보라고 주문했다. 차기자는 어렵게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朴憲珍 前의원을 만나 두 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의외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체험한 「돈 정치」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고백했다.

이후 민주당 金全孝부대변인이 반성문을 써내려 갔듯 고백한 「지적수수의 비애」(23일자 4호)도 데스크가 어둠을 잘라내야 할지 모를 만큼 잘 쓴 기사(夫亨權기자·93년 社大卒)로 반향이 컸다.

「정치인 참회록」 연재가 끝나면 정치개혁의 밑거름을 시리즈로 이어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3류」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金惠遠(95년 社大卒)  
KBS 스포츠국 기자

## 박찬호에게 「아웃」된 국내 기자들

지는 「무슨 소리지? 아웃이든 야구 경기에나 쓰이는 말인데 라커룸에서 웬일이냐」라는 생각이 공명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아웃에는 「나카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알게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찬호 선수의 요청에 구단의 홍보실 담당자가 와서 우리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취재진들은 「지금도 박찬호 선수가 아니라 LA 다저스 시절부터 라이벌이자 암투였으나 다시 뚝 통풍이 된 이스타 마일 빌테스를 취재 중」이라고 이야기하

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도 왜 굳이 박찬호 선수가 좋은 말을 두고, 그것도 영어로 아웃이라고 외쳤을까? 야구 익숙한 말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신을 쫓아다니는 기자들에 대한 짜증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지금도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다.

이무튼 훗날 우리는 밖에서 하얏트 이 기다리다 박찬호 선수가 훈련을 시작해서야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훈련을 마친 뒤 하는 인터뷰에서도 박찬호 선수의 국내 기자에 대한 편견을 알

필자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의 강타자들을 상대로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준 박찬호 선수였지만 이 당시의 경험으로 필자에게 다시는 취재하고 싶지 않은 불쾌감을 남긴 취재원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1년이 지난 뒤 올 초 스포츠클럽에서 다시 박찬호 선수를 다시 만났다. 국민들에게 영웅임지 몰라도 반갑지 않은 취재원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일리에서 어쩔 수 없이 취재를 시작했다. 혹시 아웃을 외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상상을 하며 취재를 시작했다.

어쨌든 일인지 이번에는 아웃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층 뛰어난 느낌을 받았다. 지난해 박찬호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추측을 해보았다.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글을 쓰면서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스포츠스타인 박찬호 선수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긴 했지만 기자도 사람이고 또한 필자도 사람인 것을 어쩌랴?

아웃(out)은 「밖으로」 또는 「가량이 끝난」 등 다양한 뜻을 가진 영어 단어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야구가 아닐까 싶다. 스트라이크 아웃 또는 안타를 치지 못해 1루에서 아웃 또는 야구경기도중 그라운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런데 아웃을 심판이 선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기자에게 한 적이 있다면 믿겠는가?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박찬호 선수가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팀을 옮겼다. 박찬호 선수의 이적 후 훈련에 돌입한 스포츠클럽 첫 날 국내에서는 필자가 속한 KBS를 비롯해 방송 3사가 미국 클로버랜드 현지로 취재를 갔다. 필자를 비롯한 국내 취재진들은 먼저 라커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 때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취재하는 도중 갑자기 라커룸에서 큰소리가 들려왔다. 「OUT! OUT!」

소리치는 사람은 박찬호 선수였다. 필

나 홍보 담당자는 순순히 물러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박찬호 선수는 대쪽 큰 소리로 아웃을 소리쳤다. 라커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박찬호 선수에게 쏠렸다. 잠시 동안 어색한 조용함이 흐르고, 굳어지 필자를 비롯한 방송 3사의 취재진은 모두 나을 수밖에 없었다. 훗날 우리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피하고 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박찬호 선수의 취재를 위해 왔는데 「우리가 참이이지」 하면서 널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만 지참 비켜주세요」 또는 「지금은 취재에 응하지 않을 테니 나가주

수 있었다. 박찬호 선수는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와 형식적인 인터뷰를 한 뒤 굳어지 현지 미국기자들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미국 기자들에게는 환한 웃음 속에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이 「아웃사건」을 들은 LA 특파원을 지낸 어느 선배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소속되어 있을 때 겪었던 「고충」을 간접적으로 필자에게 전하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뭐 한 번 가지고 그래. 나는 3년이 나 당했는데」.

광주·전남지부동창회 宋善鎭회장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관악무역인회 曹章鉉회장

## “각 기관별 모임과 연계, 활성화할 터”

지난 4월 10일 광주·전남지부동창회는 신임 동창회장 宋善鎭(60년 庚戌·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등문을 선임했다. 관과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연륜을 쌓은 宋동문에게 그동안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동창회 소개를.

「동창회 소속 회원수는 2002년 말 현재 약 6백80명 정도 됩니다. 학부졸업생이 대부분이지만 대학원 졸업자도 포함되고 있지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계에서 우리 동문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수, 법조계, 관제와 성장 산업분야에서 일하시는 동문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 가운데에서 특히 공과대학 동창회 운영이 활발한 편인데, 그 까닭은 대학교수 중심의 광주지부와 광양제철 중심의 광양지부 그리고 여천화학단지 중심의 여수지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동창회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어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 —그동안 해온 사업들을 평가한다면.

「일본에 한두 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모교 출신 기관장 취임 축하 모임과 신임회원 환영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회관건에 진목과 화합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발전이나 모교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서 별 실적을 거두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동창회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모교 출신 동문들이 비교적 동창회에 대한 관심이 적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편이요. 그래도 노년층과 청년층은 좀 나은 편에 속하지만 젊은층의 동문들이 특히 저조한 편입니다. 또 의외로 문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을 일면에서는 신랄하면서도 다른 일면에서는 백안시하는 사회분조가 동문들의 처신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진중인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의욕을 자극하고 북돋울 수 있는 사업과 행사를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직장 단위의 모임, 단과대학별 모임과 함께 등산, 바둑, 낚시, 골프, 테니스 등 취미별로 동호인 모임을 발굴,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은.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성 동문들의 모임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기관, 단체, 직장별 동창 모임의 구성을 추진중인데 기업 시장, 도청, 법원, 검찰, 은행 등에 소속된 동문들간에 모임을 구성해주고 이를 우리 지부동창회 모임으로 연계시킬 계획이요.

宋동문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전라남도 장성·장흥군수, 대통령비서실 재마을담당관, 경상남도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내부무 차관, 전라남도 지사, 채신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亨)

## “장학사업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관악무역인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曹章鉉(73년 丁未·(주)유니스텐다드 대표) 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동창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동창회 소개를.

「지난 1997년 한국수입업협회 회원인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직능동맹회입니다. 수입업협회의 7천여 회원 중 동문은 7백40여 명으로 천보 노보는 물론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회부와 대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총동창회와 마찬가지로 단과과정을 수료한 동문들도 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과과정 동문들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단과대학 출신의 동문들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7년 동안에 徐廷煥(64년 師大)·崔錫五(67년 工大)·金蘭鍾(71년 藥大) 동문께서 회장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 —동창회 운영방안에 대해.

「회창단을 구성하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동문들로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제출 경연하며 자수성가한 동문들이 많은 동창회 특성상 결집력이 다소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속을 강화할 기회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7년여 동안 선배님들께서 다져놓으신 튼튼한 바탕을 기반으로 이제 성숙한 단계로 올라설 때입니다.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부회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인명회 개정관을 발간할 예정인데 10월경 동문들께 배포할 계획입니다.

### —역점을 두실 사업은.

「부정기적이던 장학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세대별인 관악회와 연계해 관악무역인회 명의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편 동문 개별적으로도 장학



금을 기탁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악회가 1년에 50만원 정도의 소액장학금 기탁도 장려해주시길 것을 권의하고 싶은데요. 1년에 4백여 만원을 회사하는 계열장학금이 있는데 부담이 되는 동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어울리겠지요.

### —(주)유니스텐다드에 대해서.

「30살이던 1979년에 창업을 했어요. 어느새 24년이 흘렀습니다. 통신 및 전자제품,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로직칩을 미국 등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은 국내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 멀티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문은 제철학과, 물산실업을 거쳐 1979년 (주)유니스텐다드를 설립해 24년간 무역업에 종사해오고 있다. 한국수입업협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원, 한국수입협회 이사, 서울시 강남구상공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99년에는 무역의 날 수립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鎭)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 文憲一회장

## “어려운 이웃들 위한 후원사업 계획”

작년 5월 13일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동창회가 정식으로 총동창회 준회원으로 인준을 받은 이래 지난 3월 20일 신임 회장에 文憲一(61 AIC·법정지니어링(주) 대표이사)동문이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회회장을 만나 동창회 활동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그동안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막상 동창회 운영을 맡고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동문들의 관심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의 존재조차 모르니 참여도 낮을 수밖에 없지요. 이 때문에 동창회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홍보를 위해 수료중인 기수들을 찾아가 수업 전에 잠시 동창회

홍보를 하곤 합니다.

### —동창회원의 특징은.

「다른 과정 동창회와는 달리 정보통신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통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로 관심사를 나눌 수 있고 같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출신학교가 다른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줄 방안은.

「제가 배웠던 다른 동문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경우력이나 모임의 크기도 작을 수 있겠지요. 이들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서로에게 또는 모교에게 애착심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



에 새로운 기수가 입학할 때 모교의 마크가 새겨진 타이판을 선물하고 총동창회 회원이 된다는 사실들을 홍보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동창회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료중인 재학생들과 함께 동창회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어떤 행사들을 하였으며, 새로 구상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

녀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죠. 또 각 기수별로 동문들의 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으며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통해 그 해의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원 명부 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꺼번에 갱신해서 회원들의 연락처를 새롭게 확보해 오고 있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복지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문들이 주연에 도움이 필요할 아들에게 배움과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우한 가족이런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文동문은 서울산업대 전자공학과, 동국대 경영대학원을 마쳤으며, 대한언지니어링(주)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언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 언지니어링경제조합 이사, 한국정보통신산업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亨)



## 韓東燮 前우학여고 교사

### 부인·자녀 등 7명, 의료·학계에서 활약

“가족들, 「모여라」하면 한 시간 내 달려오죠”

경기도 여주군의 어느 시골 마을. 자연을 벗삼아 지은 가옥의 한 귀퉁이에는 아재들 심어놓은 작은 뒷밭이 있다. 차로는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33년간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봉직하다 퇴임한 韓東燮(52년 韓大 美術部主·前우학여고 교사)동문과 그의 부인 金貞愛(50년 師大·前근화여중 교사)동문은 조용하면서도, 평온한 이곳에서 환온기를 보내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보면 우리 앞마당에 청개구리, 매미 등 이곳 동네 벌레와 곤충들이 다 모여들어 우리 집애 놀러오는 것 같아 그저 신기할 때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여기에 앉아서 되돌아보면 재너들도 큰 탈 없이 잘 커준 것 같고, 나 역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월이 금방 흐른 것 같다」고 말하는 韓東燮의 사심 없고 여유로운 삶이 문득 부럽게 느껴진다.

1남3녀를 둔 韓東燮동문의 장녀 韓玲美(81년 韓大·홍대 가정의학과 강사)동문과 사위 徐廷旭(80년 韓大·모교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동문은 의학과, 장남 韓宇碩(84년 韓大·한세드로치과 원장)동문은 치의학도, 둘째 사위 崔漢鎔(80년 工大·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동문은 공학도 그리고 막내 사위 洪鎮國(85년 社會大·美위스콘신주립대 객원교수)동문은 사회학을 전공해 제각각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특기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이상하게도 장남의 아들이 저를 따라 미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미술 대회를 할 때면 항상 상을 타는 미술학도예요. 장녀인 韓玲美동문과 손녀는 또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崔漢鎔동문, 徐廷旭동문, 한명 건너 韓玲美동문, 두명 건너 韓宇碩동문, 洪鎮國동문, 사진 중앙 韓東燮·金貞愛동문 내외.

특이하게도 우리 누님을 따라 닮았어요. 특히 누님께서는 어린 시절 오빠가 남학생에게 얻어갔고 오면 팔을 걷고 찾아가서는 혼내주는 여장이었어요. 장녀 역시 지는 것을 싫어해 공부에 열심히 했고, 손녀는 또래친구가 많으면 가서 혼내주곤 하지요. 자녀들에게 제가 들려준 것은 없지만, 손자 녀석이 날 알아 찾아다니며서 더없이 뿌듯하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韓東燮에게 즐거움이란 손자·손녀들이 커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말한다면 제자들과 회로예학을 나눴던 학교에서의 추억이다. 韓東燮이 처음부터 교사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계산판이나 학교 정문에 내걸곤 했었다. 특히 그는 도안, 디자인 계통에 능했다. 모교 응용미술과

를 졸업했지만, 40~50년 전에는 디자인이라고 해놓자 기업을 선전용 타월 디자인을 하는 등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韓東燮은엔 이만큼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은 없었다고. 그래서 학교 인기 투표에서 종종 가장 재미있는 선생님이로 뽑히기도 했고, 아이들과 씨름하며 여름과 가을, 야외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이 그와 삶이었다.

#### 부인

金貞愛(50년 師大入)

前근화여중 교사

#### 장녀

韓玲美(81년 韓大卒)

홍익대 가정의학과 강사

#### 장남

韓宇碩(84년 韓大卒)

한세드로치과 원장

#### 사위

徐廷旭(80년 韓大卒)

모교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崔漢鎔(80년 工大卒)

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洪鎮國(85년 社會大卒)

美위스콘신주립대 객원교수

너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일 저녁시간도 비워 다른 치과의사들과 함께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장녀 내외는 서울, 장남 내외는 춘천, 자녀 내외는 청주에 살고 있는 터라 한번 모이기가 조금은 힘들 터,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었다. 지도를 펼쳐보고 꼭 적어보니 다름 아닌 여주였던 것.

「한시가 거리가기 때문에, 모여라 하면 금방 달려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곳에 집을 지은 거지요. 계획요? 다들 가까이 있는데 별다른 계획이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요」 (表)

### 「서울대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대 가족」코너에 소개할 동문 가족을 찾습니다. 형제,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해 동문 4명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시오. 사진과 함께 추억이 풍부한 가족들만의 진솔한 예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21-812 서울사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메일 snue@korea.com



금호건설 申 勵事장

## “우리의 비전은 영업이익 1위”



최근 금호산업 타이어부문의 매각이 완결됨에 따라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다. 이에 그룹 내에 있는 건설 부문도 재무개선이 되어 새로운 사업진출을 모색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금호건설 사장 申 勵(71년 師大卒) 동문을 만나 그동안 행보와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1년 반 동안 건설부문을 많이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처음에 막상 회사를 맡고 보니 부채와 부실 재산들로 도산 직전에 있었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부실 재산들을 매각해야만 했는데 최근 타이어부문이 매각됨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을 4백%에서 1백%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영업 이익률이 국내 최고인 건설업체로 부상했는데.

「그동안 주택부문의 재개발 시장과 SOX(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환경관련 공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작년 한해 1조7천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호건설이 생긴 이래 최고의 수주고입니다. 지금 현재 2조7천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했죠」

—그 성과의 비결은.

「이런 성과들은 내부의 개혁 없이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30년간 CIO(최고지식관리자) 역할을 해오면서 각 기업의 정보와 혁명을 주도한 바 있죠. 마찬가지로 건설회사도 관리부문에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이뤄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관리 부문에 혁신을 이뤄냈죠. 그리고 금호건설만의 강점을 살려 환경분야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주택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주요했다고 봅니다」

—타이어부문 매각으로 인해 그룹 내에서 금호건설의 역할이 달라졌을 텐데.

「부실 기업을 정리해 흑자기업을 살린다는 방식은 좋지만 과연 부실 기업을 사려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때문에 잘 나가는 흑자기업을 팔아 부실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이 더 실현성 있는 일이겠죠. 타이어부문의 매각을 통해 금호건설의 약성 재무구조가 해결됐기 때문에 과거에 금호건설이 했던 것처럼 건설사업의 이익으로 다른 그룹 전체의 이익을 주도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의 비전은 영업이익 1위의 건설업체입니다.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발굴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해 누적된 결손을 메워야 합니다. 이로 인한 이익으로 타이어부문의 주식이 공개됐을 때 다시 되사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꿈이죠」

申동문은 건국대 전산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모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했으며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삼환기업 전산실장, (주)한국산용 평가 이사, 아시아나 항공시스템담당 상무·기획 및 정보통신 부사장, 전국 CIO ROUND TABLE 회장 등을 역임했다.

(후)

## Noblesse Oblige

1백명에 가까운 대학 선후배 동문들이 모임을 만든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불혹**의 나이를 지나 50 줄에 들어선 차·의대 동문들이 의료봉사 모임을 만들었다면?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확장시장 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전복을 나뉘던 불교학생회 회원이라면, 분명 특별한하다. 지난 1999년 서울 삼성동 소재 봉은사 내에 작은 칸테이너로 출발, 무료진료소를 개소한 「선재마을 의료회」는 느지막한 나이에 불교인으로서는 좋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라는 자책 어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대 차·의대 동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의료봉사모임이다.

여기 **金光澤**(79년 慶大卒·우리치과의원장)동문은 선재마을 의료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맡으며 중분서주하고 있는 인물로, 평생토록 치아를 괴롭히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무

리 나라 전국 도 「선재마을 의료회」 **金光澤**회장 차·의대 동문들로 구성된 봉사회 이끌며 충치 예방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 펼쳐는 사업

을 20여 년간 펼쳐온 열혈(?) 치과의사로 통한다.

선재마을 의료회는 매주 일요일 당번을 정해 각 분야 의사와 치과위사, 간호사, 약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교포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다. 처음엔 가난들이라 아첨회의 등 행사 때마다 구청의 경고를 받아 칸테이너와 기기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는 등 많은 시련도 있었다. 지금은 무의촌 순회진료와 해외진료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에는 외국인 노

동자들이 많이 있는 부천의 석암사에 진료소를 개소하면서 한층 더 바쁜 주말을 보내게 됐다.

「의대와 차대 동문들이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의불회」 모임에 차대생들도 많이 있었고, 모두 불교 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꾸준히 모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점이 된거죠. 저 역시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열심히 생활 참선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고 금동문은 말한다.

조용하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와는 달리 금동문은 TV 토론회, 김거리 집회, 치과 관련 학회 모임에서 오직 한 가지,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목장처럼 외쳐왔다. 그가 이러한 일에 뛰어든 것은 고등학교 때 읽은 「충치 예방」의 개발에 대한 기사 때문. 치의학 공부해보니 이는 너무나 당연한 거짓말이었다.

「한 자들의 충치 수를 때르면 생겨 오고, 그걸

또 때우다 보니 내 삶의 보람은 몰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창립하면서 수돗물 불소화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도록 정부와 시청,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일했죠. 그 결과 지금은 36개 시·군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어요」

「선재마을 의료회」는 여느 의료봉사 모임과 다를 바 없지만, 특별한 것은 금동문과 함께 이곳 회원들은 30년 전 학창시절, 불교보살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와 나눔의 생활을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실천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表)



## 모교 공과대학 韓民九학장

## 학계의 동문

## 모교 경영대학 李京默교수

『BK21』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대학원생들과 함께 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11일 한국학술원상 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韓民九(71년工大卒·모교 공과대학 학장)동문은 수상의 영광을 대학원 재직, 연구원들에게 돌려면서도 못내 속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역장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초박막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더 얇게 만든 지난 수년간의 연구성과가 인정을 받아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개인 차원을 떠나

모교의 연구 능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산학협동을 통해 학계의 연구역량도 세계적인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합니다』

학자로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韓동문이지만 지난 1년에 동안은 대학행정자로서

비쁘게 지내야 했다. 지난해

7월 공과대학

학장에 취임한 韓동문은 3백여 명의 교수들과 8천여 명의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발로 뛰어다녔다. 자신의 연구는 잠시 뒤로 미루고 학자적 열정을 고스란히 대학행정으로 옮겨 쏟아낸 것이다.

특히 공과대학의 흥보를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교수님들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둬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며 「이름 알리는 것도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홍보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출거문」 고충을 토로한다. 한편으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韓동문은 지난해 공과대학 홍보책자를 발행해 전국 고교

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우수 인력 확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과학기술의 융성은 이뤄진다는 것이다.

韓동문이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한평생을 우리 나라 과학 발전에 헌신한 부친 故 韓萬壽(43년 京城市大 理工學部卒)前모교 전기공학부 교수의 영향과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대상이 韓동문을 공학의 길로 이끈 것이다. 세상을 둘러볼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기술의 힘이고, 이러한 바탕에는 살아남아서 밤낮 없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자로서 韓동문의 자부심 이

다. 지난 7년 동안 총 28편의 논문을

수화자를 꿈꾸던 신글 소년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영학자가 됐다.

李京默(86년 經義大卒·모교 경영대 교수)동문은 지난 8월 5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63차 세계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2002년 AMJ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세계경영학회가 학회지(AMJ)에 실린 논문 가운데 최우수 논문 한편을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경영학계의 노벨상」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대형 로펌들의 인력운용 변화를 분석했다. 이는 모교 경영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윌튼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지난 1996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모교 교수에 임용됐을 정도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

다. 지난 7년 동안 총 28편의 논문을

## 「세계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받아

## 「기초학문에 바탕을 둔 전문가 되어」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상대동종학회(회장 朴容熙)로부터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도 했다.

李동문이 경영학자로서의 꿈을 키운 것은 대학 3학년 때 「일반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시보생활을 하던 李동문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고민에 빠졌다. 결국 회계사의 길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경영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미국유학의 길을 떠났다.

부인, 1남2녀의 자녀와 함께 한 유학 생활 동안 「돈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 별 어려움은 없었다」는 李동문이지만 사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4남2녀의 막내인 李동문은 5살 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22살 위의 큰형과 누나 등 형제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학교 생활을 해야 했다. 큰형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학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유학시절에도 학교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기는 했지만, 가족 5명이 생활하는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지 채점 등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던 시절 특히 장인(金素貞·66년 商大卒·우석대 총장)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어 아직까지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충청북도 보은이 고향인 李동문은 초등학교 때 고개 3개를 넘어 등교하던 시골소년이었다. 자연 속에서 수학자의 꿈을 키우던 순수한 소년이었던 것이다. 모교 출신이라면 「수재」 소리를 듣지 않은 동문은 없었지만, 보은 고산사를 찾았을 때 인적이

라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李동문은 학회와 논문으로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갖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올해도 학회에 참석하는 부인과 세 자녀님 수영장에 가는 것으로 휴가를 대신해야 했다. 결혼을 해도 화려한 상급로 자녀는 부인의 애정 어린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그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셈이다.

李동문은 「자신의 분야에만 한정되던 2등 전문가에 그치고 만다」며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자는 물론이고 어떤 분야의 사람이라도 역사, 문학 등 기초학문이 바탕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續)

## 한국학술원상 자연과학부문 수상

## 「과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수준, 학생들의 능력은 세계적인 대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韓동문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

대학원 기숙사, 교수아파트 등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캠퍼스가 24시간 내내 연구의 열기로 살아있으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美하버드대의 경우 학부 1, 2학년 학생들의 기숙사를 입주할 강제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여건 조성」과 인프라 구성을 위한 작은 디딤돌을 놓고 싶다는 것이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의 작은 바람이다.



## 건강을 지킴시다

## 중이염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이는 고막과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을 말한다. 공기의 진동이 고막과 이소골을 거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단편이 받은 이 진동을 신경신호로 바꾸고, 이 신경신호는 청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돼 비로소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중이는 공기, 점막, 이소골로 이뤄진 뼈속의 작은 공간인데 이 중이에 염증이 생긴 것이 중이염이다. 중이염은 크게 급성 중이염, 만성중이염, 삼출성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만성중이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 한다. 이관을 통하여 삼기도 감염이 중이강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이도를 통한 감염은 고막의 천공이 있을 때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서 중이 자체의 저항력을 이기게 되면 중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고막 자체에도 염증이 생겨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있는 중이 점막에서 농이 생겨 뚫어진 고막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다. 또한 중이염이 진행되면 염증이 유양종까지 퍼져 지속적으로 이루(농이 나오는 것)를 만들어 내고 이소골까지 파괴시켜 청력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만성 중이염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염증의 제거 및 재발방지, 청력개선, 합병증의 예방이며, 염증이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전신적인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



朴賢秀(74년 醫大卒)  
비현수이비인후과 원장

행한다. 염증이 점막에 국한되지 않고 골구조까지 침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로만 치료될 수 없고 수술을 해야 한다.

중이염은 합병증으로 안면신경마비가 잘 생기는데, 이 경우 한 쪽 입이 돌아가고, 눈을 감지 못하는 증상이 생긴다. 드물게 염증이 중이를 넘어 내이로 퍼져 내이염이 생기면 난청이 되거나 심한 어지러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로 퍼져 뇌막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중이염을 수술해야 하며, 특히 진주종이 동반된 경우는 합병증 발생 경우가 많으므로 꼭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만성중이염 수술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염증제거와 청력개선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염증의 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6개월 내지 1년 후 청력개선을 위한 2단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연락처 : 2688-2386)

## 나의 건강법

## 國弓으로 오십견 극복...경영원리도 담겨

金英蕙(75년 法大卒)대구도시가스 회장

나는 활 쓰는 동작과 기업경영은 다를 바 없다고 항상 강조하고 한다. 또 이를 실제 경영에 접목시킨 이론 바 국궁 경영으로 일선 경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만작」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갖가지 경영정보를 모으는 일과 같고, 파녁을 향해 활을 쏘는 「발사

는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 경영의 원리가 국궁의 동작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셈이다.

국궁을 접하게 된 계기는 시장 은행장으로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대 법학석사,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박사과정 및 신화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중 대상성통 참언자인 부친의 요청으로 귀국해 가업을 잇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경영

현 장 은

체 령 을

고향시장을 뒀던 아니라 전에 없던 어깨 통증까지 안겨왔다. 이른바 오십견이었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시장 은행장 친구의 권유로 활시위를 당긴 후 빗길 맛이 어깨 통증이 없어졌다.

국궁에 대한 사랑은 최근 신체단련을 위한 개인치원을 넘어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는 역사적 자존수집, 활쏘기를 즐기던 동북아시아 여

러 민족과의 교류·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 및 몽골, 일본 등의 국가에서 사업 파트너가 방문하면 활을 선물하고 그 회사로 직원을 파견해 활 사용법이나 자세 등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대상그룹은 동북아 여러 국가가 지닌 활쏘기에 대한 전통적 친근감을 고리

로 글로벌 기업에 정체성을 다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요즘도 서울 사직공원 뒤 황학정, 육군사관학교 화랑정에 자주 둘러서위를 당길 뿐 아니라 집 뜰에도 간이 활터를 마련해 출근 전, 퇴근 후에도 활시위를 남기고 있다. 또한 그룹 임직원에게도 국궁을 널리 권장하고 사내동호회를 만들어 국궁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지금도 황학정 등에서 실시하는 국궁관련 행사에 매년 수십명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의 궁도 대회 및 국궁관련 학술세

미나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궁을 신체단련이나 정신집중의 방편으로 삼는 것에 머물고 싶지 않다. 기업 임직원들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기업정신을 전파하는 계기로, 나아가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업파트너로서의 세계시민의 어깨동무를 국궁을 통해 실현하고 싶다.



## 그룹 임직원에게 널리 권장, 사내 동호회도 만들어

## 이런 일 합니다

## ① 국회사무처

## 제헌국회와 함께 해온 55년 역사

## 명실상부한 국회 입법지원기구

글 : 朴秀哲(91년 農大卒)의사국 의안과장



국회 사무처 젊은 동료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좌로부터 朴大山·宋秀煥·金溪橋·徐枝英·李知賢·필자·黃大薰·金敬鎭·尙賢源·金美善·鄭仁柱·金永逸 등

서울대총동창회에서 발간한 인명록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동문들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동문들이 사회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된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국회 사무처가 아닌가 한다. 국회조직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동문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면, 국회는 국회의원 2백73명과 보좌직원 1천6백30여 명, 국회사무처 직원 1천1백70여 명, 국회도서관 직원 2백60여 명 등 총 3천3백여 명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10월 중순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더 맞이하게 된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익숙하지만, 「국회사무처」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동문들에게도 다소 낯설게 들리는 기관일 수 있다. 국회사무처의 주된 기능이 국회의 입법과 예·결산심사활동 등의 지원에 있고, 따라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1948년 5월 31일 탄생

국회사무처가 설치된 지 55년의 屋簷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사무처는 1948년 대한민국 의정사가 쓰여지면서 함께 출범한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당시 국회임시조직으로 국회사무처를 탄생시킨 후 같은 해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공포된 국회법에 설치근거가 명시됐다. 당시 직원 수는 사무총장 1명을 포함하여 약 1백명이었다. 이 때 국회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 있었는데 의사·참사·간사·녹사 등이 그 예이다.

## 「국회사무처법」 발효

1960년 제5대 국회(1960년 7월~1961년 5월)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각 원별로 사무처가 설치되고, 직원 수도 상당히 늘어 총 1천3백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공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서 「민의원 사무처와 참의원 사무처의 직원은 본법 조항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한다」고 하여 국회공무원은 전연 해직되는 비운을 겪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국회사무처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지만, 그나마 다들스럽게 군정마감 직전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기에 「국회사무처법」이 제정되어(1963년 11월 13일 의결) 제6대 국회(1963년 12월~1967년 6월)의 개원과 더불어 발효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크고 작은

몇 차례의 사무와 인원의 변동이 있었으며,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되면서 1981년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또 한 차례의 격변을 겪기도 했다.

## 국회에산정책처 출범

굴절된 헌정사 속에서 때때로 파란과 시련을 겪은 국회사무처는 민주헌정의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회의 입법지원기구로 자리잡기 위해 힘을 쏟았다. 관리기능과 행정기능에 치우친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지원과 국가정책분석 및 예산·결산심의 지원 등 선진국 의회 입법지원기구형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국회사무처에 국가예산안을 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할 때, 행정부에서 이를 무산시키려고 애쓴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축소된 기구를 설치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역설적이지만 올 10월 중순이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가예산·결산심사는 물론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게 출범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55년 나이를 돌이키면서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크고 작은

## 법률안 기초 및 검토 등 입법 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 보좌로 의사결정 도와

55년에 가까운 우리 국회의 의정사 속에서 국회사무처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은 때때로 차이는 있었지만, 꾸준히 곁여가고 있는 지향점은 분명하다. 우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들이 요망하는 입법부의 위상을 갖추면서 선진의회에 버금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에서부터 예·결산심사, 국가정책분야에서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정책과 학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21세기 선진형 통합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가 지향하는 위상이다. 그만큼 국회사무처의 오늘과 내일, 내일의 일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국회를 「통법부」라고 칭하는 비단 속에는 국회의 국회의원과 입법정책 형성능력이 행정부나 정당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회와 의원들의 입법영역제고를 위해 미국의회의 경우 1918년 의회 법제실용, 일본의회의 경우 1948년 의회 법제국을 설치하여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를 지원해주고 있다.

## 법제와 입법 지원 기능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 법제예산안이 설치된 지 채 10년이 되지 못했다. 1994년에 이르러서야 국회사무처에 법제예산안이 설치되어 개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기초해 주거나, 사전에 법률안의 내용이나 체계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본래적 법제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후 법제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9년 중정의 법제예산안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하여 보다 전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17개 상임위원회 등에 (수석)전문위원과 직원(입법실의관, 입법조사관 등)을 두어 각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을 기초하거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하는 법제와 입법지원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 1천46개 법률 속지 필요

넓은 의미에서의 법제업무는 제·개정·자구심사 업무와 의안 정리업무가 포함된다. 제·개정·자구심사 업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오는 제·개정과 해당 법률안의 법문표현 등 자구에 대

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안정리업무는 소관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제·개정·자구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의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점검을 하는 일로, 정무로 이송하기 전에 심사사항의 누락여부, 오·탈자 유무,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게 된다. 따라서 법제 업무는 1천46건에 달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대강의 지식 등 다양한 노하무를 필요로 한다.

먹는 물의 용어를 생각해내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먹는 물 관리법」을 만들어 낼 때 일의 가쁨을 한껏 느끼면서도 헌법제관으로부터 위헌법률결정이 나오는 보도를 접할 때가 가장 두려운 것이 사무처 직원이다.

## 예결산·국가 주요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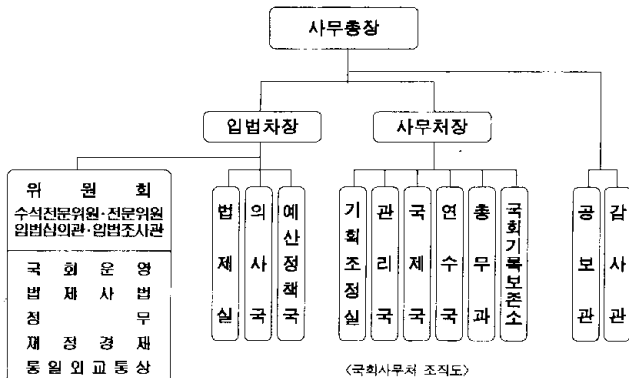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에서 주장된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과세원칙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국가의 재정통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오늘날 세계 각국 의회에서는 재정통제권을 중요한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또한 국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예산안·결산·확정권, 결산심사권 등 재정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출구형 성격 심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회의 재정통제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의회 내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회의 경우 의회소속으로 1921년 회계검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1974년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등을 설치하여 지원을 받고 있고, 영국의회의 경우 1983년 의회부속지원기관인 회계검사원(National Audit Office)을 설치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 1994년이 되어서야 국회의회의원에 대한 예·결산심사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제예산실을 설치했고, 법제예산실 기능의 중요성이 공감대를 불러기면서 1999년 신설된 예산정책국, 2003년 10월 설치예정인 국회예산정책처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백10조가 넘는 국가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에 대한 연구·분석, 국가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정책의 분석·전망,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



〈국회사무처 조직도〉

석·경기에 이르기까지 전문직 지원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행사를 실질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결산, 기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실과 유가적 협조체제가 갖추어지면 총체적 지원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정교한 검토보고를 통해 의원들에게 예산의 삭감이나 조정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의원들이 수용할 때 사무처 직원 의 의무를 느낀다.

#### 각종 회의 운영·진행 보좌

국회는 회의체, 즉 원탁상 회 의운영이 국회의 생산적 의사결

정을 산출해 내는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크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로 구분되며, 회의체 특성답게 「의사(의정)」, 「의안」, 「원안」, 「수정안」, 「대안」, 「위원회안」, 「발의」, 「(재)회부」, 「심사보고」, 「법안」, 「폐기」, 「공정회」, 「(인사)청문회」를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의사국)와 위원회회의(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진행을 보좌한다.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는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의장이나 위원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보좌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응

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각종 선례와 관행 및 국회법 규정 및 그 해설을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보좌에 임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다. 특히 회의운영업무는 지식과 경험이 모두 겸비되어야 하고, 관련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업무 때문인지는 몰라도 새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등 비4로 불리는 자라지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넓어지면서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의원 외교활동 실무 도와

국회사무처는 외국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언론에서 여전한 「외교」나 「외유」나 문제를 제기한다. 행정부에 외교전담부처가 있지만,

그렇다고 외교가 행정부만의 몫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통상협상 등에 있어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될 때 국익보호와 중대차원에서 의원외교를 통해 행정부의 외교를 측면 지원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 출입기자 지원 업무도

전반적인 의원외교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초창기·방문계획을 수립하며, 방문 외교시에는 일정차원에서부터 국회사무처 직원의 수행에 이르러서 의원외교활동 전반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하고 있다.

조직과 인력관리, 시설관리 등 일반적 행정업무와 함께 회의체 특성에 따라 속기와 경의업무가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국가기관으로 가장 많은 출입기자(5백여 명)를 지니고, 국회 회의(본회의, 위원회회의 등) 중계방송도 국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동문현황〉

| 이름  | 출생년도         | 직책             |
|-----|--------------|----------------|
| 康容植 | 63년 법대 행정    | 사무총장           |
| 鄭鍾龍 | 65년 법대 행정    | 입법차장           |
| 金鍾友 | 67년 법대 행정    | 국회외장 비서실장      |
| 鄭浩永 | 71년 사대 영어교육  | 국회도서관장         |
| 鄭在文 | 76년 연문대 국사   | 산업자원부 수석전문위원   |
| 林鍾輝 | 77년 법대 법학    | 법제사법부 수석전문위원   |
| 金勝雄 | 67년 문리대 외교   | 공보관            |
| 文濟美 | 78년 농대 농업교육  | 연수국 교수         |
| 林仁圭 | 81년 법대 법학    | 기획조정실장         |
| 柳煥榮 | 83년 사학대 경제   | 법제실 의회법제과장     |
| 金勝泰 | 86년 사학대 경제   | 예산정책처 예산정책3과장  |
| 朴秀哲 | 91년 농대 산림자원  | 의사국 의안과장       |
| 金一福 | 93년 연문대 영문   | 국제국 국제기구과장     |
| 朴仁和 | 74년 가정대 식물영양 | 예산정책3과 예산분석관   |
| 金元培 | 76년 법대 법학    | 행정법제과 법제관      |
| 崔鍾德 | 79년 사대 사회교육  | 예산정책3과 예산분석관   |
| 鄭文福 | 82년 사학대 경제   | 예산정책1과 예산분석관   |
| 池東河 | 88년 사학대 경제   |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
| 金澤城 | 88년 사학대 정치   |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1담당 |
| 鄭仁圭 | 92년 경명대 경영   | 재정경제과 법제관      |
| 蔡泰根 | 93년 사대 국민문리  | 예산정책1과 예산분석관   |
| 金永逸 | 96년 사학대 사회   | 공보담당관실 언론담당    |
| 徐振英 | 96년 사대 교육    | 산업법제과 법제관      |
| 李寶浩 | 78년 경명대 경영   |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
| 張仁鍾 | 80년 농대 농업교육  | 농림해양수산부 전문위원   |
| 李元輝 | 81년 사대 사회교육  | 건설교통부 전문위원     |
| 金滿根 | 86년 연문대 철학   | 문화관광부 입법조사관    |
| 南智源 | 92년 사학대 경제   |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조사관  |
| 朴大山 | 94년 사학대 경제   | 재정경제부 입법조사관    |
| 朴夢煥 | 94년 경명대 경영   | 운영위 입법조사관      |
| 宋秀煥 | 95년 사학대 경제   | 운영위 입법조사관      |
| 李知珉 | 95년 사대 사회교육  |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조사관  |
| 黃勝泰 | 95년 사학대 경제   | 재정경제부 입법조사관    |
| 姜大薰 | 97년 농생대 농경제  | 농림해양수산부 입법조사관  |
| 李定煥 | 97년 경명대 경영   | 재정경제부 입법조사관    |
| 金勇泰 | 99년 사대 화학교육  |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조사관  |
| 金敏鎬 | 91년 경명대 경영   | 재정경제부 입법조사관    |
| 徐德載 | 02년 사학대 정치   | 국방위 입법조사관      |
| 李權南 | 85년 연문대 독문   | 국가정보원 과장       |
| 鄭鍾根 | 87년 농대 농경제   | 유학             |
| 延光路 | 91년 법대 사법    | 유학             |
| 郭寶煥 | 95년 연문대 불문   | KDI 국방대학원 교육   |
| 林在鎬 | 98년 사학대 경제   | 군복무            |
| 鄭鍾哲 | 00년 경명대 경영   | 군복무            |

\* 대외원 및 다(다)경 등 동문 현상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관계로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동문 50여 명 핵심적인 역할 담당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이끄는 디딤돌

국회사무처에 약 50여 명의 동문들이 몸담고 있다. (표 참조) 1천여 명이 넘는 국회사무처 전체 인원 중에서 그다지 큰 비율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문 모두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선 국회사무처의 수장으로 康容植(63년 法大卒)사무총장(장관급)이 있다. 연문계에서 출발하여 행정부(공보처차장·국무총리비서실장)와 제12대·제14대·제15대 국회의원을 거친 康사무총장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직감을 바탕으로 朴寬用(18기 ACAD)국회의장 취임 이후 본격화된 국회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 국회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탄생시킨 것으로서 국회 입법지원조직 책임이 주 도약시키는 등 국회사무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고 있다. 鄭鍾龍(65년 法大卒)입법차장(차관급)은 행정고시 10회에 합격하여 재무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으며 1998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국회와 인연을 맺은 후, 국회법안이 되어 행정부와 충분히 아이디어를 국회제도개선과 입법지원강화에 쏟아 붓고 있다.

金勝友(67년 法大卒)국회의장 비서실장(차관급)은 외무부와 통일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비서실을 이끌어 국회 의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안보·통일문제에서 탁월한 보좌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鄭浩永(71년 師大卒)국회도서관장(차관급)은 입법고시 4회 출신으로 의안과장, 의사국장, 법제예산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거쳤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1세기 선진 국회의 발전을 만드는 데 실패를 기

울이고 있다.

입법고시 2회인 林鍾輝(77년 法大卒)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행정관리담당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의사국장, 법제실장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입법고시 4회인 鄭在文(76년 人文大卒)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건설위원회 입법조사관, 駐프랑스 주입법관, 국방위원회 입법심의관, 법제실장을 거쳐 2002년부터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비록 밖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회사무처의 동문들은 선진국회의 회로의 도약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많은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바란다.

# 동 정

## 수 상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지난 8월 9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5회 만해축전에서 제7회 만해대상(학술부문)을 받음.

▲李愛珠(60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 지난 8월 9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5회 만해축전에서 제7회 만해대상(예술부문)을 받음.

▲張錫興(7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인 교수)= 최근 아시아 지역 과학자 중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학회(ANS) 열수력분야 학술상 수상자에 선정됨.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 김벌리 사장)= 지난 8월 30일 일가기념사업재단이 수여하는 제13회 인가상을 받음.

▲金榮希(87년) 師大卒·MBC 프로듀서)= 지난 9월 3일 KBS 홀에서 열린 제3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TV프로

듀서상을 받음.  
▲姜哲寅(98년) 醫大卒·모교 병

원 전임의)=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미생물학회 제43차 학술회 및 화합요법 국제학회에서 젊은 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우수 논문상을 받음.

▲安지운(00년) 工大卒·모교 기술정책전공 박사과정)= 최근 호주에서 열린 국제통신학회(ITS) 아시아-호주 학회에서 최우수 학생논문상(Best Student Paper Award)을 받음.

▲徐仙鶴(47기) SGS·한국사회복지개발원장·중국 연변대 객원교수)= 최근 백두산문인협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백두산문학」시 부문에 응모, 교향의 3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돼 제6회 신인문학상을 받음.

## 이 동 · 선 임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지난 8월 31일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李相周(60년) 師大卒·前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세교교육공동체연합 상임대표)= 지난 8월 23일 성신여대 제7대 총장에 선임됨.

▲林炳斗(61년) 文理大卒·前한국방송위원회 위원·본보 논설위원)= 지난 8월 1일 SBS 프로덕션 고문에 위촉됨.

▲朴濟烈(66년) 法大卒·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8월 5일 대

검 형사부장에 임명됨.  
▲朴哲圭(67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 최근 세계 미용성형수술학회 공식 학술지인 「Acsthetic Plastic Surgery」의 편집위원에 선출됨.

▲高永宙(71년) 工大卒·대교검 차장)= 지난 8월 5일 청주지검장에 임명됨.

▲郭永哲(71년) 法大卒·대검 강력부장)= 지난 8월 5일 대검 마약부장에 임명됨.

▲李永權(71년) 商大卒·수출입은행장)= 지난 7월 31일 아시아 개발 은행(ADB)의 부총재 겸 사무총장에 임명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이사·본보 논설위원)= 최근 LG상업은행재단의 지원으로 고려대 연세대 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돼 9월 1일부터 「방송영상정책」과목을 강의함.

▲朴昌正(73년) 文理大卒·한국마사회 부회장)= 지난 8월 12일 한국마사회 회장에 임명됨.

▲徐瑛(73년) 行大院卒·前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지난 8월

3일 대한주택공사 감사에 임명됨.

▲韓桂珠(74년) 文理大卒·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난 8월 11일 전라북도 정부부지사에 내정됨.

▲趙承植(74년) 法大卒·서울검검 형사부장에 지난 8월 5일 대검 강력부장에 임명됨.

▲洪景植(74년) 法大卒·법무부 법무실장)= 지난 8월 5일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됨.

▲吳相奎(74년) 商大卒·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8월 14일 산업연구원(KIET) 부원장에 선임됨.

▲申相久(74년) 醫大卒·모교 약리학교실 교수)= 최근 보건복지부 약물유전체사업단 단장에 선정됨.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지난 8월 27일 대한민국의향회 대변인에 위촉됨.

▲金榮柱(75년) 文理大卒·재정경제부 차관보)= 지난 8월 17일 청와대 정책수석실 정책기획비서관에 임명됨.

▲朴炳元(75년) 法大卒·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지난 8월 18일 재정경제부 차관보에 임명됨.

▲鄭鉉植(75년) 師大卒·성경관대 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8월 4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됨.

▲朴達泳(76년) 工大卒·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지난 8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1대

사장에 임명됨.

▲黃禹錫(77년) 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 지난 8월 1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선임됨.

▲尹啟泰(78년) 工大卒·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지난 8월 10일 하나로통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東奎(78년) 醫大卒·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최근 유럽신경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Acta Neurochirurgica」의 편집위원에 위촉됨.

▲慎鎭浩(79년) 社會大卒·금강제와 부사장)= 지난 8월 6일 금강제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林彩靑(80년) 法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 지난 8월 8일 동아일보 필진국 부국장에 선임됨.

▲池東炫(81년) 經營大卒·조흥은행 부행장)= 지난 8월 18일 LG카드 전라기획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安貞善(81년) 深大院卒·공주대 교수)= 지난 8월 4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됨.

▲李超勝(84년) 社會大卒·동양그룹 심독보)= 지난 8월 7일 인터넷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 사장에 취임함.

▲郭海坤(85년) 社會大卒·청와대현장모니터비서관)= 지난 8월 17일 제도개선비서관에 임명됨.

▲**朴典魯**(87년 人文大卒·SBS 보도제작CP)=지난 8월 6일 SBS 기획제작CP에 선임됨.

▲**李漢準**(89년 社會大卒·KBS PD)=지난 8월 22일 제주도에 서 열린 한국방송공로유서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제1대 회장에 선임됨.

▲**李石淵**(91년 大學院卒·연호사)=지난 8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에 선임됨.

▲**徐敏植**(92년 社會大卒·前이사)=다 리를 코리아 이사)=지난 8월 11일 중소기업진흥기금추진위원회 상무보에 선임됨.

▲**金 振**(47기 AMP·대한주력공사 사장)=지난 8월 8일 대한근대 5층 연영 제1대 회장에 취임함.

▲**李義鉉**(20기 AIP·대일복수강대표·대림대 겸임교수)=지난 8월 25일 중소기업진흥기금추진위원회 중소기업제조특별임(PL) 자문단 자문위원에 위촉됨.

▲**李文謙**(27기 ACAD·경남신문이사)=최근 설립된 재단법인 광동종합학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함.

▲**李 沁**(32기 ACAD·한국잡지협회 회장)=지난 7월 28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金泰奎**(44기 ACAD·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회장)=지난 7월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남한안시협의회 회장에 임명됨으로, 8월 22일 현안시 제당코리아에서 취임식을 개최함.

▲**安鎮元**(6기 EPHM·前대한인사협회 총보임장)=최근 YTN-지널 편집위원에 선임됨.

▲**白榮院**(51년 醫大卒·인제대 이사장·분회교문)=지난 8월 7일 인제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인 요코스카 기독교사회관 하미노 이사장을 만나 학생실습프로그램 및 양 기관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함.

▲**金壽浩**(56년 法大卒·법대행정회 운영위원·八·九회장)=지난 8월 19일 연영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노조 창설 43주년 기념식 및 금융노조 10회 금융인 문화제 시상식에 참석, 축하 인사를 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의대동창회장·분회 부회장)=지난 8월 22일 의료분사와 인재양성 등의 공로로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음.

▲**朴賢謙**(58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지난 8월 8~10일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제1회 인과과학기술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학술회에 참석, 「북한과의 과학기술 공동연구-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주제로 기조연설함.

▲**具聖堂**(59년 師大卒·서울보건대 학장·보대원 동창회장)=지난 8월 11일 강원 양양군 소양면 동호리 양양개발원 부지에서 「을지 인력개발원」 착공식을 개최함.

▲**張敏峰**(60년 法大卒·국학원장)=지난 8월 6일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에서 장영주 단원 드림앙코르원장을 초청

해 「한국 고유의 삼일상사와 겨레문화」를 주제로 제12회 국민강좌를 개최함.

▲**李台燮**(62년 工大卒·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연경, 울진, 고리, 월성 등

4개 원전 인근지역에서 해변기요제를 개최함.

▲**權內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8월 6~13일 재외동포 대학생 51명을 선발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케 하는 모국연수 사업을 실시함.

▲**安聚萬**(64년 法大卒·한국외대 총장)=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에서 LG CNS(사장 鄭勝賢·10기 AIP)와 e-learning 교육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짐.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류타당상임 음악감독)=지난 8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류타당상임 음악감독을 참관

15주년 기념 및 제30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함.

▲**金孝成**(65년 法大卒·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지난 8월 25일 한국산업기술대에서 명예 겸임학 박사학위를 받음.

▲**李富植**(66년 文壇大卒·교토

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14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주

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崔永煥**(67년 行大院卒·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8월 13일부터 5일간 무연전시장에서 「2003 대한민국 과학주간」을 개최함.

▲**李宗宰**(68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8월 1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 현안 세미나를 개최함.

▲**李相熙**(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2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 에너지 분야 CEO들을 대상으로 「제2기 에너지 고위 경영자과정」을

개강함.

▲**林吉鎮**(69년 工大卒·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최근 벨지움 루바에서 열린 미국 대학 교육학회와 유럽 대학교

육교육협회의 합동회의에서 「세계화와 국제교육, 연구 실무」를 주제로 사회 및 발표를 함.

▲**朴明淵**(76년 僑大院卒·한국아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장)=지난 8월 1~4일 경북 청송군 소재 주왕산연수원에서 제38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함.

▲**李珪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신문로2가 「아트포럼 뉴제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아트포럼 뉴제이트 개관전 2부(허공에 그은 붓)에 작품을 출품함.

▲**趙錫鍾**(82년 美大卒·대진대 강사)=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신문로2가 「아트포럼 뉴제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아트포럼 뉴제이트 개관전 2부(허공에 그은 붓)에 작품을 출품함.

▲**徐敦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8월 11일 아산시 구강에서 총학생회 간부학생들과 함께 「2003년 대구 하계

## 국립국악원 尹美善원장

### 「해외국악문화학교」문 열어

국립국악원(원장 尹美善·69년 音大卒·사민)은 소속 단원을 해외에 파견, 재외동포와 현지인에게 우리 국악을 소개하는 「2003 해외국악문화학교」를 개설했다.

문화학교는 지난 8월 5~13일 러시아 사할린의 한국문화원에서 사물놀이, 4~16일 독일 베를린의 한국문화원에서 아리랑에서 한국무용을 하루 4시간씩 교육했다.



국악원은 을 하반기 미국·러시아·캐나다 등지에 국악학교를 개설하고 악기 등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원)

유니버시티아트대회」성화를 봉송

▲**徐道漢**(85년 美大卒·재미 설치가)=지난 6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개최함. 한국화단의 거목인 徐世錫(50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의 화의 장

남이다.

▲**裴重奎**(89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8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공동강의실에서 「연립선형의 소개와 시장성」 등의 주제로 신화협동공개강좌를 개최함.

▲**金芝英**(91년 音大卒·대구산업정보대 강사)=지난 9월 2일 예술의전당 리스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어 모차르트, 슈만, 드뷔시, 프로코피예프 등의 작품을 선보임.

▲**서윤진**(98년 音大卒·피아니스트)=최근 메이스트스 주립대에서 최연소 피아노 연주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며, 뉴욕 카네기홀(10월 6일)·참원 선아트홀(12월 4일)·예술의전당(12월 14일) 등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윤주**(98년 音大卒·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소프라노)=오는 9월 20~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03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초청받아 23일 코리아나호텔 오케스트라와 협연함.

▲**沈甲輔**(3기 AMP·삼일LMS 부회장)=지난 8월 13~15일 수안단 조선훈관호텔에서 자사 전국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할 마케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함.

▲**朴昌源**(31기 AMP·전경기년관장)=지난 8월 7일 기념관 내 호국조모상에서 8월의 호국인물

「朴野燦」참평」을 축하하는 현양 행사를 개최함.

▲**成完鎭**(32기 AMP·대아건설 회장·충청포럼 회장)=지난 8월 2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純元)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 제9회 포럼을 개최함.

▲**尹昌福**(8기 AIP·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부장)=최근 고려대 대학원에서 「과학기술 클러스터 관점

을 통한 연구개발」을 주제로 연구, 라는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음.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심학회 총연합회장)=지난 7월 29일 평생 동안 교육에 헌신해온 뛰어난 교육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재충원하고자 제안한 「회칙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

▲**朴錫鍾**(28기 ACAD·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베트남 쾅닌시와 다낭시에서 5백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함.

▲**姜武賢**(52기 ACAD·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8월 1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전문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심리=安聖賢기자)

▲**金壽浩**(56년 法大卒·법대행정회 운영위원·八·九회장)=지난 8월 19일 연영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융노조 창설 43주년 기념식 및 금융노조 10회 금융인 문화제 시상식에 참석, 축하 인사를 함.

▲**李富植**(66년 文壇大卒·교토

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14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주

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崔永煥**(67년 行大院卒·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8월 13일부터 5일간 무연전시장에서 「2003 대한민국 과학주간」을 개최함.

▲**李宗宰**(68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8월 1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 현안 세미나를 개최함.

▲**李相熙**(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2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 에너지 분야 CEO들을 대상으로 「제2기 에너지 고위 경영자과정」을

개강함.

▲**林吉鎮**(69년 工大卒·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최근 벨지움 루바에서 열린 미국 대학 교육학회와 유럽 대학교

육교육협회의 합동회의에서 「세계화와 국제교육, 연구 실무」를 주제로 사회 및 발표를 함.

▲**朴明淵**(76년 僑大院卒·한국아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장)=지난 8월 1~4일 경북 청송군 소재 주왕산연수원에서 제38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함.

▲**李珪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신문로2가 「아트포럼 뉴제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아트포럼 뉴제이트 개관전 2부(허공에 그은 붓)에 작품을 출품함.

▲**趙錫鍾**(82년 美大卒·대진대 강사)=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신문로2가 「아트포럼 뉴제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아트포럼 뉴제이트 개관전 2부(허공에 그은 붓)에 작품을 출품함.

▲**徐敦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8월 11일 아산시 구강에서 총학생회 간부학생들과 함께 「2003년 대구 하계

## 행사·출간

##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회에서 회초를 밝힌 동문을 소개한다.

▲김규배(96년 經國大卒)군·김은영 양=9월 28일 12시 30분.

▲이창후(02년 人文大卒)군·김희수 양=10월 12일 12시 30분.

## 회 장 단

▲부회장 尹勳煥=50만원

## 평생회비

▲강부건(69년 丁大宰)=50만원  
 ▲강수만(89년 歲大宰)=20만원  
 ▲구본준(78년 自然大宰)=50만원  
 ▲권복주(68년 美大宰)=20만원  
 ▲김경주(88년 農大宰)=20만원  
 ▲김해경(74년 師大宰)=20만원  
 ▲나형수(66년 文理大宰)=20만원  
 ▲박인성(88년 醫大宰)=20만원  
 ▲박재범(98년 醫大宰)=20만원  
 ▲백윤홍(88년 工大宰)=20만원  
 ▲송복식(52기 ACAD)=20만원  
 ▲신장수(74년 法大宰)=20만원  
 ▲안유경(73년 農大宰)=20만원  
 ▲이기남(71년 文理大宰)=50만원  
 ▲이석원(96년 農生大宰)=20만원  
 ▲장성주(71년 文理大宰)=20만원  
 ▲전승만(88년 法大宰)=20만원  
 ▲정대환(78년 法大宰)=20만원  
 ▲정찬홍(59년 文理大宰)=20만원  
 ▲한병원(81년 農大宰)=20만원  
 ▲허영호(75년 工大宰)=20만원  
 ▲홍국진(80년 工大宰)=20만원

## 이 사

## ◇인문대학

▲정동영

## ◇사회과학대학

▲송민권 ▲정경현

## ◇간호대학

▲박문희 ▲이상미 ▲장정희  
▲허 영

## ◇경영대학

▲박영준 ▲박용민 ▲신상환  
▲하부영

## ◇공과대학

▲강광연 ▲강명준 ▲강석규  
 ▲강승우 ▲강현식 ▲고석규  
 ▲구장영 ▲김병국 ▲김동철  
 ▲김문철 ▲김병준 ▲김서일  
 ▲김석현 ▲김연식 ▲김영철  
 ▲김원배 ▲김주호 ▲김주환  
 ▲김대섭 ▲김대희 ▲문인수  
 ▲민제식 ▲박경배 ▲박금희  
 ▲박익철 ▲박민태 ▲박상근  
 ▲박용준 ▲서규 ▲서정욱  
 ▲서진구 ▲선유호 ▲송동준  
 ▲송시현 ▲송태영 ▲신인기  
 ▲심구원 ▲심유식 ▲심혜영  
 ▲오화석 ▲유남용 ▲위재혁  
 ▲원정재 ▲유진성 ▲유병철  
 ▲유재국 ▲윤 분 ▲윤병환  
 ▲이계환 ▲이구택 ▲이근보  
 ▲이병익 ▲이병철 ▲이상호  
 ▲이성관 ▲이승기 ▲이영호  
 ▲이정구 ▲이정인 ▲이정갑  
 ▲이종수 ▲임 회 ▲장정영  
 ▲전상수 ▲정명식 ▲정인철  
 ▲정영철 ▲정희희 ▲정조성  
 ▲조영준 ▲조창희 ▲최완철  
 ▲편준근 ▲하현성 ▲한상규

# 외비남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이사: 2003년 4월 29일~2003년 6월 18일, 일반: 2003년 4월 29일~2003년 5월 18일〉

## ◇농림생명과학대학

▲한제소 ▲합승호 ▲허영우  
▲홍성부 ▲홍성희 ▲황이선  
▲황중규

## ◇문리과학대학

▲강연영 ▲박연철 ▲권오진  
 ▲김정관 ▲김영철 ▲김훈동  
 ▲민관식 ▲박일인 ▲박재동  
 ▲서기호 ▲송재관 ▲신파승  
 ▲신한봉 ▲유희기 ▲유여정  
 ▲이상규 ▲정경주 ▲최찬식  
 ▲황경구

## ◇문리과학대학

▲강민식 ▲강성위 ▲구병호  
 ▲권철순 ▲김덕봉 ▲김병자  
 ▲김진경 ▲김용연 ▲김정태  
 ▲김희상 ▲나병욱 ▲문병호  
 ▲박영호 ▲박봉기 ▲박종오  
 ▲방석기 ▲서희용 ▲서재식  
 ▲송영교 ▲신병범 ▲신우식  
 ▲신현종 ▲송영택 ▲이광웅  
 ▲이광희 ▲이근우 ▲이남기  
 ▲이민섭 ▲이병상 ▲이부영  
 ▲이영철 ▲이재익 ▲이향원  
 ▲임병석 ▲전용성 ▲전종갑  
 ▲전종수 ▲정병순 ▲전준택  
 ▲조경갑 ▲전홍순 ▲하두봉

## ◇미술대학

▲김준욱 ▲이종철

## ◇법과대학

▲강영규 ▲강인현 ▲경종철  
 ▲공석희 ▲공규영 ▲구용원  
 ▲권재태 ▲김기영 ▲김경태  
 ▲김나복 ▲김병환 ▲김대관  
 ▲김동호 ▲김상준 ▲김상철  
 ▲김상진 ▲김시영 ▲김영삼  
 ▲김영철 ▲김영준 ▲김용환  
 ▲김일권 ▲김일현 ▲김재덕  
 ▲김재희 ▲김지현 ▲김진우  
 ▲김정근 ▲김정준 ▲김희성  
 ▲나정욱 ▲문영국 ▲문인구  
 ▲민병국 ▲박상기 ▲박용상  
 ▲박원표 ▲박정서 ▲박종성  
 ▲박준서 ▲박희태 ▲변 국  
 ▲변기철 ▲부국영 ▲서재원  
 ▲손수익 ▲송광수 ▲신희택  
 ▲심우영 ▲인병기 ▲인태웅  
 ▲안병수 ▲양동수 ▲오서희  
 ▲오태환 유 훈 ▲유승수  
 ▲윤호인 ▲이진범 ▲이규호  
 ▲이대형 ▲이병기 ▲이보환  
 ▲이석현 ▲이승배 ▲이원정  
 ▲이종기 ▲이종순 ▲이철현  
 ▲이희용 ▲이광수 ▲이광민  
 ▲장정원 ▲정경택 ▲정대훈  
 ▲정명익 ▲정연호 ▲정문희  
 ▲지용원 ▲재재익 ▲최석원  
 ▲최인기 ▲최정립 ▲한영국  
 ▲한성기 ▲한정희 ▲한영철  
 ▲홍성우 ▲황규원 ▲황병인  
 ▲황수갑

## ◇사범대학

▲구병형 ▲김경자 ▲김관영  
 ▲김기만 ▲김영식 ▲김용관  
 ▲김종연 ▲문영식 ▲박장수  
 ▲박한식 ▲신현식 ▲우세홍  
 ▲이기태 ▲노연철 ▲이석조  
 ▲이주영 ▲이흥기 ▲이희용  
 ▲정선호 ▲주필영 ▲최기숙  
 ▲원도연

## ◇상과대학

▲강 목 ▲김광조 ▲김대준  
 ▲김덕기 ▲김덕봉 ▲김만경  
 ▲김배철 ▲김사현 ▲김영규  
 ▲김은택 ▲김정우 ▲김종서  
 ▲김종욱 ▲김주복 ▲김종기  
 ▲김장수 ▲김정환 ▲김태두  
 ▲김홍준 ▲김희석 ▲나길용  
 ▲노명래 ▲노인환 ▲민정재  
 ▲박 기 ▲박병규 ▲박봉준  
 ▲박영주 ▲배명환 ▲배창도  
 ▲변정기 ▲유기태 ▲심원택  
 ▲양재호 ▲유기철 ▲위상복  
 ▲유석기 ▲유원영 ▲유진우  
 ▲유우진 ▲윤익수 ▲이진재  
 ▲이계문 ▲이관규 ▲이규수  
 ▲이근재 ▲이영진 ▲이용선  
 ▲이종기 ▲이진우 ▲이찬규  
 ▲장만희 ▲전수선 ▲정종수  
 ▲정장식 ▲정정수 ▲정조홍  
 ▲정종욱 ▲정대목 ▲정정호  
 ▲조 순 ▲조대연 ▲조덕관  
 ▲전영욱 ▲한상권 ▲한일상  
 ▲황창학

## ◇생활과학대학

▲이인자

## ◇수리과학대학

▲김택수 ▲김호준 ▲백충기  
 ▲신 심 ▲오영영 ▲이흥식  
 ▲장인호

## ◇약학대학

▲김 영 ▲김광순 ▲김낙우  
 ▲김수경 ▲문순만 ▲송창진  
 ▲신현희 ▲유용근 ▲이규환  
 ▲이민희 ▲이상호 ▲이승환  
 ▲이정기 ▲정경택 ▲주상삼  
 ▲진 강 ▲홍기정

## ◇음악대학

▲김희경 ▲신수정

## ◇의과대학

▲고원순 ▲김정주 ▲김세영  
 ▲김승환 ▲김종원 ▲김주일  
 ▲김지진 ▲남국경 ▲문한규  
 ▲박기원 ▲김성용 ▲박상준  
 ▲박성준 ▲박태영 ▲박희일  
 ▲송두호 ▲송익준 ▲송희준  
 ▲신동희 ▲심달성 ▲심병호  
 ▲양두희 ▲오경관 ▲이민호  
 ▲이병주 ▲이수철 ▲이태호  
 ▲이학준 ▲이형진 ▲전동원  
 ▲정대웅 ▲조병규 ▲주근원  
 ▲최용득 ▲최재득 ▲최진수

▲최정욱 ▲한국호 ▲한승수  
 ▲한원호 ▲홍원선

## ◇치과대학

▲강대준 ▲강효식 ▲구창서  
 ▲구창수 ▲김경애 ▲김상숙  
 ▲김성태 ▲김윤철 ▲김경철  
 ▲김정범 ▲김중수 ▲남동성  
 ▲남수현 ▲남용욱 ▲라윤영  
 ▲민병진 ▲박금태 ▲박기성  
 ▲박상규 ▲박재관 ▲박주호  
 ▲박원호 ▲백동준 ▲백소호  
 ▲서경수 ▲신일규 ▲신현철  
 ▲안희원 ▲염경철 ▲유병도  
 ▲이경호 ▲이범준 ▲이병우  
 ▲이봉재 ▲이상범 ▲이연호  
 ▲이용호 ▲이재범 ▲이재원  
 ▲임태홍 ▲정계순 ▲전영성  
 ▲정진용 ▲정판원 ▲정원봉  
 ▲조성복 ▲조성진 ▲조우동  
 ▲주원철 ▲지현택 ▲한성욱

## ◇대학원

▲김석영 ▲윤옥경 ▲정경철  
 ▲정성철

## ◇경영대학원

▲김관중 ▲이상락

## ◇보건대학원

▲김남주 ▲박순영 ▲이규현  
 ▲이영남 ▲정영재

## ◇사법대학원

▲김윤호 ▲김기수 ▲김영준  
 ▲이우진 ▲이원성

## ◇신문대학원

▲박소진 ▲김복록 ▲안성근  
 ▲유원영

## ◇행정대학원

▲김인구 ▲고승삼 ▲김성영  
 ▲문희갑 ▲심기현 ▲이재호  
 ▲전주식

## ◇환경대학원

▲박준배

## ◇최고경영자과정

▲김진재

## ◇보건료정정책고관과자과정

▲정의희

## 일 반

## ◇인문대학

▲고광모 ▲곽재성 ▲권태인  
 ▲김광원 ▲김동철 ▲김석희  
 ▲김원식 ▲김학숙 ▲김환국  
 ▲노대성 ▲박성준 ▲박순환  
 ▲백복식 ▲박진수 ▲신현호  
 ▲오성기 ▲오세준 ▲유창오

▲윤병욱 ▲윤국준 ▲이규성  
 ▲이동일 ▲이영연 ▲이영훈  
 ▲이한목 ▲이해원 ▲이홍근  
 ▲정기봉 ▲조미선 ▲조찬식  
 ▲허민경 ▲허철민

## ◇사회과학대학

▲강대성 ▲김영욱 ▲장철호  
 ▲고승원 ▲곽재현 ▲권운우  
 ▲권태훈 ▲김 영 ▲김정철  
 ▲김남일 ▲김주영 ▲김태숙  
 ▲노대성 ▲노택선 ▲류시호  
 ▲문도선 ▲박경재 ▲박규표  
 ▲박근성 ▲박병룡 ▲박상규  
 ▲박성민 ▲박희희 ▲박재홍  
 ▲박준서 ▲박지영 ▲박진희  
 ▲방진욱 ▲배성민 ▲배현기  
 ▲부윤경 ▲서동영 ▲서범영  
 ▲송광락 ▲송기호 ▲신상수  
 ▲신희정 ▲안상환 ▲인영일  
 ▲염주영 ▲오문석 ▲오세준  
 ▲오영관 ▲유병준 ▲원규희  
 ▲유동익 ▲유학원 ▲윤영선  
 ▲윤재혁 ▲이기선 ▲이덕선  
 ▲이종익 ▲이동철 ▲이선복  
 ▲이성호 ▲이수현 ▲이승훈  
 ▲이용철 ▲이윤성 ▲이정윤  
 ▲이진범 ▲이찬우 ▲이진복  
 ▲임재성 ▲장영철 ▲장성호  
 ▲정원영 ▲정기정 ▲정병욱  
 ▲정성진 ▲정민욱 ▲정복국  
 ▲정우현 ▲정원호 ▲정홍순  
 ▲조석현 ▲조성희 ▲조용준  
 ▲진수호 ▲최광희 ▲최영환  
 ▲최원범 ▲최주수 ▲한덕원  
 ▲홍기두 ▲황선영 ▲황성준  
 ▲황영수 ▲황원환

## ◇자연과학대학

▲강경태 ▲강대성 ▲강석규  
 ▲강주영 ▲김병수 ▲김상규  
 ▲김상보 ▲김영규 ▲김용백  
 ▲김윤수 ▲김이준 ▲김재원  
 ▲김정기 ▲김동준 ▲김철현  
 ▲김준식 ▲김재준 ▲김형록  
 ▲나기환 ▲노동진 ▲노승권  
 ▲민영철 ▲박기석 ▲박상수  
 ▲박성용 ▲박성준 ▲박관영  
 ▲변희석 ▲소상원 ▲송 윤  
 ▲송재봉 ▲송창근 ▲안우현  
 ▲안영인 ▲정철희 ▲이 대  
 ▲이동일 ▲이동환 ▲이동환  
 ▲이명태 ▲이성호 ▲이수용  
 ▲이시훈 ▲이지희 ▲장정우  
 ▲장병태 ▲장종만 ▲장동우  
 ▲정 정 ▲정동근 ▲정병진  
 ▲정진욱 ▲정철희 ▲조세희  
 ▲최달영 ▲최원우 ▲하남규  
 ▲홍광원 ▲황영순

## ◇간호대학

▲강병희 ▲고혜봉 ▲권민각  
 ▲김경희 ▲김병철 ▲김시정  
 ▲김영숙 ▲김호순 ▲노윤구  
 ▲도봉순 ▲양소희 ▲원영남  
 ▲윤영희 ▲이영현 ▲이영아  
 ▲이은숙 ▲이정희 ▲임숙진  
 ▲전규남 ▲태영수 ▲현영자  
 ▲현희수

## ◇경영대학

▲강성원 ▲강정원 ▲권병민  
 ▲김기영 ▲김기환 ▲김석우  
 ▲김승호 ▲김관중 ▲김성호  
 ▲김원선 ▲김진택 ▲김정현

▲신원호(新源浩) ▲정남하(正南河) ▲정삼명(正三命)  
▲정영언(正映彦) ▲정차우(正 차우) ▲정해남(正海南)  
▲조경래(趙景來) ▲조광우(趙光宇) ▲조동삼(趙東三)  
▲조성배(趙成培) ▲조세연(趙世演) ▲조영수(趙映秀)  
▲조용완(趙容完) ▲조한몽(趙漢蒙) ▲조해근(趙海根)  
▲조원수(趙元秀) ▲주문기(周文基) ▲최거훈(崔基勳)  
▲최기우(崔基宇) ▲최성관(崔成官) ▲최승욱(崔承旭)  
▲최영(崔榮) ▲최종고(崔鍾古) ▲최철웅(崔澈雄)  
▲최재식(崔在植) ▲대병식(大炳植) ▲하광호(河光浩)  
▲하심지(河心池) ▲한계환(韓桂煥) ▲한세주(韓世周)  
▲하민기(河敏基) ▲한우주(韓우주) ▲한희국(韓熙國)

## ▲ 힘징문69 ▲

[illegible]

## ▲신하영43 ▲

▲ 어 영(英) ▲ 여장인영(女粧人映) ▲ 오병동(五病洞)  
▲ 오병현(吳炳顯) ▲ 왕봉문(王鳳文) ▲ 우근조(吳君助)  
▲ 우명익(吳鳴翼) ▲ 유만길(劉萬吉) ▲ 유기환(柳基煥)  
▲ 유남하(劉南河) ▲ 유진열(劉鎭烈) ▲ 육찬욱(陸贊旭)  
▲ 유의림(劉義林) ▲ 윤성희(尹成喜) ▲ 윤석삼(尹錫三)  
▲ 윤정호(尹正浩) ▲ 윤준서(尹準瑞) ▲ 이기섭(李基涉)  
▲ 이강준(李康俊) ▲ 이재계륜(李在桂輪) ▲ 이기종훈(李基鍾勳)  
▲ 이보사(李甫沙) ▲ 이삼섭(李三涉) ▲ 이선철(李仙澈)  
▲ 이순환(李舜煥) ▲ 이소년(李素年) ▲ 이승우(李承宇)  
▲ 이영남(李榮南) ▲ 이목자(李木子) ▲ 이용무(李用武)  
▲ 이원재(李源在) ▲ 이원복(李源福) ▲ 이영근(李榮根)  
▲ 이재환(李在煥) ▲ 이춘산(李椿山) ▲ 이정철(李正哲)  
▲ 이주연(李周演) ▲ 이홍수형(李洪守亨) ▲ 이상승(李尙丞)  
▲ 임관태(任官泰) ▲ 임관정(任官正) ▲ 임수민(任水敏)  
▲ 임친택(任親宅) ▲ 임광준(任光俊) ▲ 임상철(任相澈)  
▲ 임두식(任斗植) ▲ 장주호(張周浩) ▲ 전영우(田榮宇)  
▲ 정기환(鄭基煥) ▲ 정경민(鄭敬民) ▲ 정호준(鄭浩俊)  
▲ 정국자(鄭國子) ▲ 정승우(鄭昇宇) ▲ 조준옥(趙尊玉)  
▲ 조경개(趙景開) ▲ 조철원승(趙澈元丞) ▲ 조초희(趙超熙)  
▲ 조반린(趙班麟) ▲ 주보노(周保奴) ▲ 지순철(池遵澈)  
▲ 진현(陳顯) ▲ 최백일(崔百一) ▲ 최진석(崔鎭石)  
▲ 최용삼(崔龍三) ▲ 최필지(崔必志) ▲ 최병언(崔秉彦)  
▲ 최해대(崔海大) ▲ 추신수(秋新瑞) ▲ 추이환(秋伊煥)  
▲ 탁동운(卓東雲) ▲ 탁인자(卓仁子) ▲ 탁재환(卓在煥)  
▲ 하철권(夏哲權) ▲ 한상규(韓相圭) ▲ 현대화(韓代華)  
▲ 한희덕(韓熙德) ▲ 허영(許穎) ▲ 허수환(許秀煥)  
▲ 함창희(咸昌喜) ▲ 홍기갑(洪奇甲) ▲ 홍복부(洪福夫)

## ▲한글화▲

◆상과대화

▲강완기(9) ▲고광범(8) ▲권영욱(8)  
▲김광안(6) ▲김대식(4) ▲김도연(6)

▲이병정(25) ▲이상철(30) ▲이성우(25)  
▲이영국(17) ▲이영훈(10) ▲이재돈(10)  
▲이세복(10) ▲이진산(10) ▲이진원(10)  
▲이하동(4) ▲이현국(3) ▲이희수(4)  
▲이희찬(10) ▲임병욱(5) ▲임종민(10)  
▲장보근(3) 전 준(4) 전 준중(3)  
▲전태영(3) ▲전영민(12) ▲정동호(3)  
▲정진호(8) ▲정해수(3) ▲조남익(4)  
▲조성두(4) ▲조은식(5) ▲조용익(4)

▲최비기(가) ▲최비이(가) ▲최삼필(가)

○최치원(崔致遠) ○최치한(崔致漢) ○최충무(崔忠武)  
 ○최충환(崔忠煥) ○황진(黃鎭) ○황정(黃鼎)  
 ◇고급금융과점  
 ○김진숙(金鎭淑) ○권오대(權五臺) ○김영일(金榮一)  
 ○김진태(金鎭泰) ○김정경(金正敬) ○문형구(文炯九)  
 ○박순희(朴順喜) ○변정삼(邊正三) ○유형보(柳炯輔)  
 ○양홍희(梁弘喜) ○최치근(崔致根)  
 ◇다소합격고위정책과점  
 ○박시진(朴時鎭) ○변봉주(邊奉周) ○장진숙(張鎭淑)  
 ○채일학(蔡一學)  
 ◇가정간호수습과점  
 ○박준애(朴俊愛) ○신길남(申吉南) ○정경란(鄭敬蘭)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점  
 ○강한목(姜漢穆) ○배두주(裴斗周) ○김경래(金敬來)  
 ○김남배(金南培) ○김상근(金相根) ○김영록(金榮祿)  
 ○김종순(金宗順) ○김정삼(金正三) ○김희태(金熙泰)  
 ○김희태(金熙泰) ○박정준(朴正準) ○박광호(朴光浩)

▲유영준(1) ▲유종아(9) ▲이

▲이우용③ ▲임하재⑧ ▲정혜수④  
▲조근상⑨ ▲조성훈⑤ ▲최병하⑥  
▲한길호④ ▲한춘조② ▲홍의준⑦

▲정오(正午) ▲정월(正月) ▲정경(正經)

▲김영희⑧ ▲류희근④ ▲박승연③  
▲방금석② ▲서관보② ▲손숙영③  
▲손재림⑥ ▲양승하② ▲오국진③  
▲윤기남⑤ ▲이공우⑤ ▲이상택③  
▲이승욱③ ▲이영완① ▲이장성③  
▲이주국② ▲전영구① ▲정인화③  
▲조동철④ ▲홍광식③ ▲홍승현③

## ▲ 投資

◇해방정책최고과정

- ① 김선기② 김종록③ ▲김중환④
- ⑤ 송만순① 신기춘② 신석훈③
- ④ 정강성① 최익환② 최인규③

◇정보통신방송정책핵심

- ① 강연국⑤ 구자영⑩ ▲김낙희⑥
- ⑦ 김동훈⑧ 김재관⑨ 김태수④
- ⑤ 문종현⑩ 박기순② 서진호③
- ④ 성기희⑩ 유영기② 이현철③
- ⑤ 안을로⑦ 조정국⑧ 최경하⑩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 ① 장한선② 변지우① ▲이성일②

## ▲종식할것!

월 계 : 82,908,130원  
총 계 : 300,787,404원  
+13,000\$

PDF &amp; E-book Design HANWOORISJM



동창회보를 읽고

## 소외된 동창 살피는 회보이길 ...

高惠玲(68년 文理大卒)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학교를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회교생불인양 자기가 낯은 곳 지란 곳을 못 잊어 돌아가려는 심리를 갖게 된다. 도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은퇴한 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근원은 바로 이 회교생이 아닌가 싶다.

「Veri Tas Lux Mea」의 꿈을 품고 다녔던 서울대도 관악으로 옮긴 후에는 내가 다닌 화교라는 의식이 희박해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사실 동창 동 세대로서는 인문대학 국사학과라는 용어도 낯설게만 느껴진다. 나는 분명히 문리과대학 사회과 출신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나와서 동창회보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서울대동창회라는 단어는 매우 어색한 것이었다. 과연 그런 조직이 있는가?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 이젠 서울대라는 대규모의 종합대학 속에서 수많은 단과대학과 학회인, 특수 대학원들이 제각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각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에서 다른 단과대학 출신의 동창과 인사를 교환하면서 서울대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반갑다거나 친근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반면에 문리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같은 동창동창회사를 거느린 사람으로서의 친근감을

을 갖게 되는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경험 때문이었으리라.

이런 이질감을 그대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때는 한방씩 배달되는 동창회보이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의 근황도 가끔 나오고, 「서울대는 하나」라는 의식도 주입시켜주니 말이다.

“

잘 나가는 분들의  
자기 과시의 장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으면

”

이런 의미에서 동창회보의 존재의미는 참으로 지대하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아마 우리 나라의 어느 학교 동창회보다도 엘리트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겠다. 과연 동창회보를 훑어보면 그에 걸맞게 사회에 공헌하고 정치, 사회, 문화, 학술 어느 방면에서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인다.

서울대동창회보는 모교의 발전상과 각 계각층에서 성공한 자랑스러운 동창들을

소개한다. 또 조그만 중소기업부터 대재벌기업에 이르는 능력 있는 CEO들의 면모도 보여준다. 그러가 하면 사회 각 곳에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동창들이 소개된다. 한편으로 동창회보는 본인 자신과 형제, 부부와 아들 딸 따느리 사위 모두들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창 가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동창들의 선망을 모으기도 한다.

동창회보에 동창이 아닌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일은 매우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이라는 칼럼은 나트시스의 자화상에 빠져있는 서울대인에게 사랑의 매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신선한 칼럼이다.

잡다한 우편물의 홍수 속에서 동창회보를 받아들였을 때 봉함용 찢는 손서는 그리 앞서지 않는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쁠 때는 한쪽으로 모아두었다가 봉함을 찢지도 못하고 다른 신문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은 나 하나 뿐이지만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특별히 보고싶은 기사나, 보아야 할 기사가 실려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창회보가 관례적인 인사보보다도 잘



나가는 분들의 자기 과시의 장이 되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열망보다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찾아내서 소개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 인각에서는 서울대 해체론마저 나오는 위기적인 상황 하에서 「과연 서울대는 우리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생가 해보는 기획이 필요하며, 서울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가치관이 혼돈에 빠져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사회를 청정시키는 일에 동창회가 앞서야 함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동창회보가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된 동창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와 공감의 힘이 되어 회보를 받아드는 순간 그리움과 훈훈함으로 봉함을 연지 뜯게 되는 우편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동창회보 난도질 계속 하고파”

鄭仁植(78년 工大卒)정인갤러리 대표, 교육·문화 활동가



10여 년을 전공분야도 아닌 갤러리를 운영하다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정리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것도 공학도의 한 개인지 모른다. 예술이란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한가지 않은 것도 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또래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금은 성숙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수적으로도 다른 장르의 문화도 조금씩은 발도 댄다고 되었고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여러 분야의 서적들을

상당량 읽게 되어 제법 글도 적어보고, 발표도 하게 되어 학부모들이나 주변 친구들 모임에 초대도 받는 영광스런 일(?)도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도 아직도 그를 각자의 전공분야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료나 책들을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받는 입장에서 정리가기가 귀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이나 PC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구식으로 넘겨주는 탓에 효율적이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가끔 내가 보내준 자료 덕분에 학점에 직접 보탬이 됐거나 글 응모를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연락이 오면 그저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글 응모로 제법 용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동창회보도 예외일 수 없다. 다 읽고 난 후에는 예외 없이 가위로 난도질당해 필요한 부위(?)별로 나눠진다. 이번 7월 15일자(304호)의 경우에도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의 글은 모교 약대에 재학중인 딸에게, 「문화산책」의 「결혼이야기」 글은 나를 비롯한 또래들에게 1부씩 복사하여 가지도록 해주고 교과 동기 홈페이지에도 올릴 자식을 결혼식 때 참고하도록

“

다 읽고 난 후에  
필요한 부분 오려내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의 강연회에  
인용하려 쟁겨둔다

”

해준다. 동문의 소리에 살인 「아버지로서 또 다른 역할 있었다」의 내용은 장성한 딸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로루 나눠주고 혹시 아버지모임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참고하려고 내 파일에도 소장해 보관한다.

그 딸의 「전질시만이 유별하지 않은

사회」라는 글은 학생이나 학부모들 대상의 강연회 때 꼭 인용하려고 쟁겨두게 된다.

이런 일이 동창회보 편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으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가장 동창회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무료로 나눠주는 유인물 하나도 쟁겨보는 습관은 갖게 됐지만, 미술사로 있는 아내나 두 아이들에게는 무언의 압력도 분명 존재할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은 제대로 전달하기도 힘들고 자칫 실수라도 하게되면 아버지 체면이 많이 아니겠지만 글로써 전달되는 직·간접 자료는 1백%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칼럼에 가까운 나 때문에 내일은 어떤 자료들이 가해질 텐데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식을 가게 되려는 지 사투 나도 궁금하다. 그렇지만, 실낱 같은 아버지의 역할을 위해서도 가워진 계속할 것이다.